

한국어의 복수 표지와 수-분류사에 대한 소고

최기용[†]

광운대학교

A Note on Plural Markers and Numeral Classifiers in Korean

Kiyong Choi[†]

Kwangwoo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yntactic and semantic properties of three Korean plural markers: *-huy*, *-ney*, and *-tul*. We argue that each marker syntactically forms its own N-adjunction structure with the preceding N, where N is the head and the marker is a non-head modifier, as described by Wiltschko (2008). Each marker also contributes a distinct semantic function that shifts the extension of the preceding N. We further claim that a numeral classifier has this function only in the so-called classifier-case type numeral classifier construction in Korean, which Choi (2025a) likewise analyzes as an N-adjunction structure. If correct, these claims undermine the major arguments of Park (2022) regarding plural *-tul* and its co-occurrence relationship with numeral classifiers. We reject Park's appositive-type structural analysis of numeral classifiers and argue that *-tul* can co-occur with a classifier because it functions as a modifier rather than a head.

Keywords: numeral classifier, plural marker, modifier, N-adjunction structure

1. 머리말

한국어에는 다음 예에서 보듯이 복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희’, ‘-네’, ‘-들’ 모두 세 가지가 있다(Ko & Koo, 2008, p. 81; Nam & Ko, 2014, p. 86 등).

(1) 가. 저-희, 너-희

* 본고의 내용을 다듬는 데 있어 전영철 교수와 강범모 교수와의 대화가 큰 도움이 되었다. 이에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또한 논문 전반에 대한 세세한 지적과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세 분의 심사자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자 한다. 물론 논문의 잘못된 전적으로 필자의 몫으로 남는다.

[†] Corresponding author: kiyongchoi@kw.ac.kr



- (3) 가. ?*철수가 사과들 두 개를 먹었다.
 나. 철수가 학생들 두 명을 찾고 있다.

본고는 (2)에 대한 반론의 성격을 띤다. 먼저 (2가)와 관련해 필자는 한국어의 복수 표지들이 독립된 핵을 이루기보다는 이들 앞에 오는 명사 표현들과 함께 복합 X (혹은 X-부가 구조)를 이룬다고 보는데 본고의 이 제안은 이 구조에서 복수 표지가 핵 성분이 아니라고 보므로 Wiltschko식 분류에 의하면 한국어의 복수 표지들은 수식어 유형에 속한다.⁵⁾ 이와 관련해 S.-Y. Park(2022)은 한국어 복수 표지에 대한 Wiltschko의 제안 (즉 수식어로 보는)이 한국어 복수 표지에는 안 맞음을 지적하였는데, 본고의 제안처럼 N에 대한 수식어 혹은 N-부가로 보는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한편 (2나)는 (3)의 대비를 포착하기 위한 이론적 제안이다. 문제는 (3가)와 (3나)의 대비가 어느 정도 확실한 상태에서 (3가)의 부자연스러움을 (2나)의 제안에서 찾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나 하는 것이다. 또한 (2나)를 뒷받침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는 동격 구조 제안이 얼마나 타당하나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본고는 (2나)와 관련해 기존 연구를 토대로 (3가)의 부자연스러움을 보는 다른 시각이 가능함을 제시하는 한편 (3나)를 동격 구조로 보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는 물론 (3)의 대비를 포착함에 있어 (2나)의 제안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님을, 아니 더 나아가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물론 본고가 (2)에 대한 반론으로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2)에 반대함과 동시에 앞에서 소개된 한국어 복수 표지 전반 및 수-분류사에 대한 이론 제시와 함께⁶⁾ 관련 현상에

이고 구조는 그 구성의 실제 통사적 구조를 가리킬 때 쓰는 용어이다. 이런 구분을 두는 이유는 S.-Y. Park(2022)에서 (3)에서와 같은 수-분류사 구성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가지 구조, 즉 수-분류사 구조와 동격 구조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나)의 제안은 바로 박소영의 수-분류사 구조에 적용되는 것으로, 박소영은 (3나)는 수-분류사 구조로는 나쁘나, 동격 구조로는 좋다고 보고 있다.

5) Wiltschko는 수식어로서의 복수 표지가 결합하는 대상이 언어마다 다를 수 있다는 가정하에 한국어의 복수 표지는 명사와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D 혹은 DP와 결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Wiltschko, 2008, p. 689). 이는 ‘-들’ 표현이 한정성을 가진다는 Kwon & Zribi-Hertz(2004)를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Kwon & Zribi-Hertz(2004)에서도 ‘-들’ 표현이 한정성을 갖지 않는 예로 다음이 언급된 바 있다.

- (i) 미나는 책들을 읽지 않았다.
 ‘Mina didn’t read some books.’ =Kwon & Zribi-Hertz(2004, (32))

이 외에도 여러 기존 연구에서 ‘-들’ 표현이 한정성 표지가 아니라는 지적 또는 논증들이 있었는데(Y. Jun, 2004, 2007; E.-J. Kwak, 2003; Kim & Melchin, 2018:5절; C. Lee, 2000; S.-Y. Park, 2022, 각주 1, 158 등 참고), 필자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해서 한국어의 복수 표지 ‘-들’은 D와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N과 결합하는 것으로 본다. 이는 한국어의 복수 표지 ‘-들이 Wiltschko(2008)에서 N 차원 혹은 단어 내부 수식어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된 Halkomelem어의 복수 표지와 기본적으로 같은 성격을 가짐을 의미한다. 물론 각주 2에서 언급했듯이 두 언어의 복수 표지 간에는 차이도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후에 이루어진다.

6) 이 이론은 필자가 추구하고 있는 한국어 명사구의 구조 및 해석에 관한 이론을 토대로 한다. 구조 제안과 관련해서는 K. Choi(2023)를 참고할 것.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2절에서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 (2가)와 (2나)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구체화하고 각각을 대체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2.1에서는 복수 표지와 관련된 (2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X-부가 구조에 입각한 본고의 대안을 제시한다. 2.2에서는 (2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궁극적으로는 (2나)가 폐기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2나)의 폐기는 수-분류사에 대해 다른 이론이 필요함을 의미하는데, 3절에서는 이 작업을 시도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어 수-분류사 구문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나 각 유형에서 수-분류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고에서는 각 유형의 통사적, 해석적 차이에 대한 K. Choi(2025a)의 제안과 명사구의 의미에 대한 본고의 제안을 토대로 각 유형에서 수-분류사가 하는 해석적 역할이 서로 다를 것을 보인다. 3.1에서는 이른바 분류사-격형에서 수-분류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S.-Y. Park(2022)의 제안과 비교하면서 제시한다. 3.2에서는 속격형의 수-분류사를 다루며 역시 S.-Y. Park(2022)의 제안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3.3에서는 명사-격형/이중격형에서의 수-분류사가 앞의 두 유형에서의 수-분류사와 역할이 다를 것을 보인다. 4절은 결론이다.

2. 한국어의 복수 표지: S.-Y. Park(2022) 검토

2.1. (2가)에 대한 검토 및 대안: N-부가 구조

2.1.1. (2가)에 대한 검토

사실 한국어 복수 표지 ‘-회’, ‘-네’, ‘-들’ 간의 경험적 차이에 대한 S.-Y. Park(2022)의 관찰에는 크게 수정할 만한 내용이 없다. S.-Y. Park(2022)은 이를 아래 표 1과 표 2로 정리했는데,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 검토하기로 한다.

표 1. 한국어의 두 가지 유형의 복수 =S.-Y. Park(2022, Table 2)

	집단 복수(‘-회’, ‘-네’)	합 복수(‘-들’)
해석	집단(group) 혹은 연대(associative) 해석	합(sum) 해석
결합 대상	인간 명사만(대명사, 고유명사, 친족용어)	제약 없음
위치	‘-들’의 앞에 온다.	‘-회’ 혹은 ‘-네’ 뒤에 온다.

먼저 위 표에서 얘기하는 ‘-회’/‘-네’와 ‘-들’ 간의 해석적 차이는 Li(1999)가 지적한 중국어 복수 표현 *-men*의 중의성에 대응되는 것이다. 중국어에서는 이 두 해석 (즉 “집

단’ 해석 대 “합” 해석)이) 하나의 복수 표지에 의해 나타나지만, 한국어에서는 두 해석을 서로 다른 복수 표지가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다. 즉 ‘철수네’와 ‘철수들’ 간에 다음과 같은 해석적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4) 가. 철수네

‘철수 그리고 그와 관련되는 사람들’

나. 철수들

‘철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두 표현 간에 위와 같은 해석적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 필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차이를 각주 7에서 소개한 형식의미론상의 “집단” 대 “합”의 차이로 보는 것에는 조심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우선 ‘-희/-네’가 의도하는 “집단”과 영형 복수에 대해 부여된 형식의미론적 “집단”의 성격이 다른 것 같다. 후자의 “집단”에는 “집단”을 이루는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없는데 반해, 전자의 “집단”에는 ‘-희/-네’ 앞에 오는 명사가 가리키는 개체와 나머지 개체들 간에 어떤 담화적 연대 관계가 전제된다(이후 ‘-희/-네’가 의도하는 해석을 가리킬 때, “집단”이라는 용어보다는 “연대”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한편 S.-Y. Park(2022)에서는 형식의미론적 논의에서 벌어지는 두 복수 표지 간의 배분성/개별성 대 집단성 규정에 대한 논의가 없으나, ‘-들’이 분류사와 마찬가지로 개별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H.-P. Im, 2000; Y. Jun, 2004, 2007, 2013 등) 그 증거로 아래 예문을 제시한 바 있다.

(5) 가족들이 다 모였다.

그러나 ‘모이-’가 개별성/배분성보다는 집단적 해석을 갖는 술어라는 점에서(B. Kang, 2007), 적절한 예로는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아래 예는 ‘모이-’라는 집단적 해석 술어가 ‘-네’와도 같이 쓰일 수 있음을 보여, 배분성/개별성 대 집단성과 관련하여 ‘-네’ 표현과 ‘-들’ 표현간에 별 차이가 없음을 보인다.

7) 한국어의 영형 복수 대 ‘-들’ 복수의 해석적 차이에 대한 의미론적 논쟁에서도 이 두 개념이 등장한다(B. Kang, 2007, 2008; E.-J. No, 2008; C.-W. Park, 2010; M.-H. Paek, 2002; Y. Jun, 2004, 2007; E.-J. Kwak, 2003 등). 두 개념의 형식의미론적 규정은 다소 다른데, “합” 해석은 단수 개체를 합하여 복수 개체로 만드는 “합” 운영자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고 “집단” 해석은 그런 “합” 운영자에 “집단” 운영자가 적용되어 하나의 집단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차이를 토대로 H.-P. Im(2000); Y. Jun(2007) 등은 ‘-들’ 복수는 “합” 해석, 영형 복수는 “집단” 해석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집단 해석을 갖는 영형은 배분성/개별성 해석을 가질 수 없는데 반해, 그런 “집단” 해석이 없는 ‘-들’ 복수는 “합”을 이루는 개별 개체에 대해 배분성/개별성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이 두 복수형 사이에 배분성/개별성, 집단성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없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B. Kang, 2007, 2008 등). 필자는 기본적으로 두 복수형 사이에 배분성, 집단성과 관련된 기본적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다. 즉 개별성 혹은 개별화가 ‘-들’만의 기본 의미라고 보지 않는다.

(6) 영수네가 다 모였다.

이 점은 배분성/개별성 해석을 강요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7) 가. 엄마가 자기 아이들에게 풍선을 하나씩 주었다.

나. 영미가 철수네에게 풍선을 하나씩 주었다.⁸⁾

이어 ‘-네’와 ‘-회’에 대한 제안을 보자. 우선 눈에 띄이는 점은 ‘-회’를 가진 표현으로 ‘너-회’와 ‘저-회’ 둘이 있을 뿐인데, ‘우리’를 ‘나-회’의 보충형으로 파악한 점이다.⁹⁾ 그리고 ‘-네’와 ‘-회’는 동일한 핵(이른바 *n*)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두 표현의 해석적 성격이 (4가)의 “연대”로 같다는 점말고도 서로 상보적 분포에 있는 듯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8) 가. 저희/*저네, 우리(나-회)/*나네, 너희/너네

나. 철수네/*철수회, 조카네/*조카회

필자는 ‘우리’를 ‘나-회’의 보충형으로 보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회’와 ‘-네’의 관계를 S.-Y. Park(2022, (24))에서처럼 elsewhere 조건으로 처리하는 데에는 아래 예에서 보듯이 두 표현의 동시 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대한다.

(9) 우리네, 저희네, 너희네

게다가 ‘-회’와 ‘-네’ 사이에는 어순 제약도 있다. 즉 ‘-회네’의 어순은 허용하지만, ‘-네 회’의 어순은 허용하지 않는다.

(10) *저네회, *너네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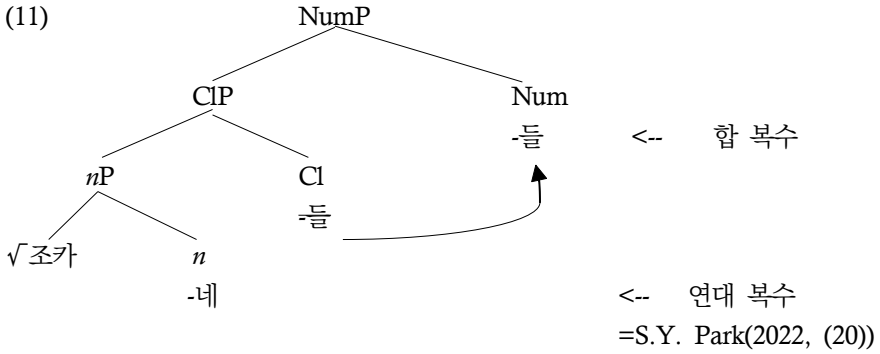
필자가 이 점을 지적하는 이유는 ‘-네’와 ‘-들’ 간에도 같은 성격의 어순 차이가 나타나며 S.-Y. Park(2022, (20))이 이를 아래와 같이 두 표현의 서로 다른 구조적 위치 차이로 파악하려 했기 때문이다.

8) 다음은 ‘-회’ 표현도 배분 해석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i) 가. 영미가 우리에게 풍선을 하나씩 주었다.

나. 영미가 너희에게 풍선을 하나씩 줄 것이다.

9) Nam & Ko(2014, p. 87)도 같은 제안을 하고 있다.



즉 위 구조에서 ‘-네’는 ‘-들’보다 먼저 명사 혹은 어근(root)과 병합하며 이로 인해 ‘N-들네’의 어순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희’와 ‘-네’ 간에 보이는 (9)와 (10)의 대비 역시 ‘-희’와 ‘-네’를 서로 별개의 핵으로 묶으므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희’와 ‘-네’를 구조적으로 분리해야 함을 제안하는 것이다.

한편 S.-Y. Park(2022)은 복수 표지와 수-분류사가 함께 할 경우의 양상을 아래 표 2로 정리하고 있다.

표 2. 복수 유형과 수-분류사와의 동반 출현 =S.-Y. Park(2022, Table 3)

	연대 복수 표지(‘-희’, ‘-네’)	합 복수 표지(‘-들’)
대명사	수-분류사와의 동반 출현 가능	수-분류사와의 동반 출현 가능
고유명사	수-분류사와 동반 출현 가능	복수 해석으로는 수-분류사와의 동반 출현 불가능
보통 명사		인간 명사의 경우 수-분류사와의 동반 출현 가능 비인간 명사인 경우는 동반-출현 불가능

먼저 복수 표지 앞 성분이 보통 명사인 경우는 ‘-희/-네’ 계열과 ‘-들’ 간의 대비는 안 보이는데, 이는 물론 전자가 보통 명사를 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해서 S.-Y. Park(2022)은 두 계열 간에 N이 고유 명사인 경우에만 차이가 있다고 본 셈이다.

- (12) 가. 영미네 세 명
 ‘영미 그리고 두 명의 다른 여자’
 나. *영미들 세 명
 ‘영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세 명’ =S.-Y. Park(2022, (12))

그러나 (12나)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즉 S.-Y. Park(2022, 각주7)의 익명의 심사자도 (12나)를 나쁘다고 보지 않았는데, 필자의 판단으로도 그리 나빠 보이

지 않는다.¹⁰⁾ 특히 S.-Y. Park(2022)은 각주 7에서 ‘-들’이 한정 해석을 갖는 맥락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필자의 판단으로는 다음 예들도 그리 나빠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아래 예문의 ‘영미들’은 고유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해석이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13) 내가 성이 각기 다른 영미들 세 명을 찾아 올게.

마지막으로 위 도표에서 N이 대명사인 경우로 파악된 아래 두 예를 비교해 보자.

(14) 가. 너희 세 명
나. 그들 세 명

=S.-Y. Park(2022, (13))

(14가)의 ‘-희’는 “연대” 해석을 갖는 복수 표지이고 (14나)의 ‘-들’은 “합” 해석을 갖는 표지로 분석되는데, 둘 간에는 수용성 차이가 없다는 관찰이다. 이 관찰 자체에는 동의하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두 사례에 대한 S.-Y. Park(2022)의 이론적 제안에 의하면 둘의 수용성 분석은 그 내용이 아주 다르다. 먼저 (14가)는 (11)과 같은 수 양화사 구조를 가지는데, (14나)는 (11)과 같은 구조의 수 양화사 구성일 수 없다. 그 이유는 (2가)에 의해 ‘-들’과 분류사인 ‘-명’의 동반 출현이 안 되기 때문이다. 해서 S.-Y. Park(2022)은 (14나)는 (11)과 같은 수 양화사 구조로는 배제되고 오로지 동격 구조(명사 부분은 DP이고 수-분류사는 DP에 부가되는 구조로 보고 있다. 아래 (51나)의 구조를 참고할 것.) 즉 명사와 수-분류사 부분이 주어-술부의 해석을 갖는 구조로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에 반해, (14가)에 대해서는 이론적 가능성이 열려 있게 된다. 즉 ‘-희’가 ‘-들’ 계열 복수 표지가 아니므로 ‘-희’와 분류사 ‘-명’의 동반 출현이 여기는 제약이 없으며 해서 (11)과 같은 구조로도 가능한 반면, (14가)도 ‘너희가 세 명이다’라는 식의 동격 해석도 가능하다고 봐야 하는데, 통사적으로 서로 다른 구조인 두 구성 간에 각각의 구조가 의도하는 해석적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의문시된다는 점에서 이런 가능성은 오히려 개념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보겠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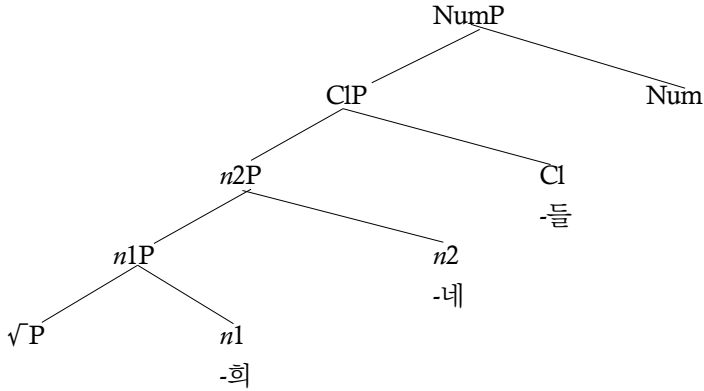
지금까지 (2가)와 관련된 S.-Y. Park(2022)의 이론적, 경험적 제안을 검토해 보았다. 사실 위 예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 (12나)를 제외하고는 필자와 S.-Y. Park(2022) 간에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그리고 필자가 지적한 문제점들이 박소영의 이론적 제안 즉 (11)의 구조적 제안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희’와 ‘-네’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11)의 구조를 수정하여 각각을 위해 아래와 같이 두

10) 물론 ‘영미 세 명’보다 안 좋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필자는 이 대비가 개인별로 또는 맥락에 따라 완화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법 원리의 위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11) 더 나아가 ‘너희들 세 명’에 대해서는 동격 구조로만 가능하다고 얘기해야 한다. 실제로 S.-Y. Park(2022, (27))은 ‘-들’의 출현 여부에 따라 구조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의 n 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¹²⁾

(15)



그러나 필자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아래의 예들은 이들 복수 표지들 간에 엄격한 어순 제약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 복수 표지들 간에 왜 하나의 어순만 허용되는가?

- (16) 가. N-희-네-들
 나. *N-희-들-네
 다. *N-네-희-들
 라. *N-네-들-희
 마. *N-들-희-네
 바. *N-들-네-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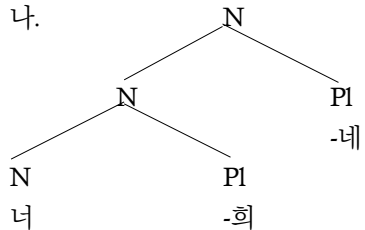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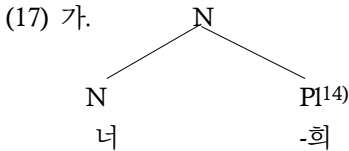
이는 물론 각 복수 표지의 선택적 성격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즉 ‘-희’와 결합이 가능한 명사는 ‘나’, ‘저’, ‘너’의 세 표현뿐이고 ‘-들’의 경우는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일단 가산 명사와의 결합이 가능한 반면, ‘-네’의 경우는 보통 명사와는 결합이 허용되지 않고 고유 명사 또는 친족 명사 등과 같은 제한된 범위의 명사하고만 결합이 되는 양상인 것이다. 이런 선택 양상이 각 표지를 독립 핵으로 보는 (11) 또는 (15)의 구조에서는 이들 표지 앞의 성분이 최대 투사(XP)이므로 핵-보충어 관계로 파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희’, ‘-네’, ‘-들’들을 모두 별도의 핵으로 취급하는 한, 개별 핵의 보충어 선택 성격의 기술은 그리 단순해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들’의 경우 (16가)에서 보듯이 그 앞에 ‘-희’, ‘-네’ 표현이 다 올 수도 있지만(‘너희네들’), ‘-희’ 표현만이 오는 경우도 가능하고(‘너희들’) ‘-네’만이 오는 경우도 가능하고(‘너네들’, ‘영미네들’ 등)

12) 그러나 n 을 범주-결정성 핵으로 보는 S.-Y. Park(2022, 158)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n 을 두 개 설정하는 것이 작위적인 것은 분명하다.

또한 rootP만 오는 경우도 가능한데(‘학생들’, ‘책상들’ 등) 이들 ‘-들’ 앞에 오는 표현의 범주적 성격이 (15)의 구조하에서는 서로 다르므로 ‘-들’이 이들 각각을 보충어로 취하는 것으로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sqrt{P} , $n1P$, $n2P$ 등) 그러나 이는 ‘너희’, ‘너희네’, ‘영미네’, ‘학생’ 등이 ‘너희가/너희를’, ‘너희네가/너희네를’, ‘영미네가/영미네를’, ‘학생이/학생을’에서와 같이 모두 같은 격조사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범주로 파악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15) 구조에서는 그런 파악이 추가 설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그리 바람직한 결과로는 보이지 않는다.

2.1.2. (2가)에 대한 대안: N-부가 구조

본고에서는 (11) 혹은 (15)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대안을 일단 제시하기로 한다. 이 대안은 X-부가 구조를 이용한 것으로 복수 표지들이 명사 표현에 부가된 것으로 본다. 이 제안에 의하면 ‘너희’, ‘너희네’, ‘너희들’, ‘너희네들’, ‘학생들’의 구조는 각각 다음과 같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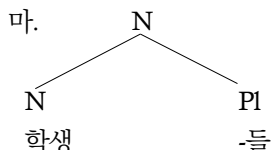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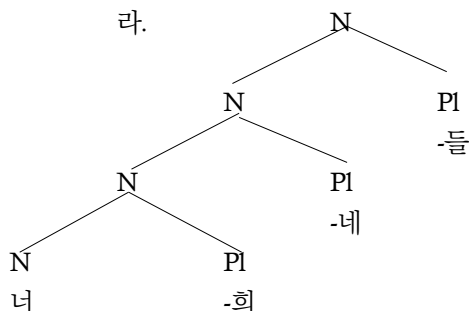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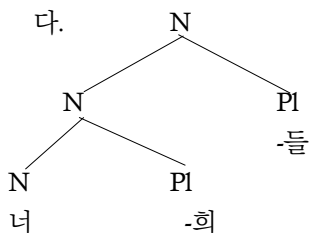


13) 이 구조에서 복수 표지가 핵이 아닌 수식어라는 점에서 이 구조는 Halkomelem어의 복수 표지에 대해 Wiltshcko(2008, (13))가 제시한 다음 구조와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

- (i) [N Pluralizer [N]]
{-1-/Red-, ...}

필자는 X⁰ 혹은 단어 내부의 통사 구조에 대한 이론으로 X-부가 구조를 제안하고 있는데, 실제로 Wiltshcko도 Halkomelem어의 복수 표지를 단어 내부의 수식어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Halkomelem어의 복수 표지의 단어 내부에서의 실현 양상은 한국어와는 완전히 다르다. 한국어의 경우는 접미사로서만 실현되나, Halkomelem어에서는 접요사(infix), ablaut 또는 중첩(reduplication)의 형태로 실현된다(Wiltshcko, 2008, p. 641 참고). 이는 단어 내부의 통사 구조가 X-부가 구조 외에 아주 다양한 형태로 실현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변이에 대한 비교 언어학적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돌린다.

14) 이들 복수 표지의 범주를 무엇으로 볼지를 결정하는 직접 증거는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점이 (18)의 이론에 의하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왜냐면 N-부가 구조에서 복수 표지들은 모두 비핵 성분이기 때문이다. 일단 편의상 Pl로 표기한다.



이 구조는 필자의 X-부가 구조 이론을 반영한 것으로 이 이론에 대한 자세한 소개 및 적용은 필자의 다른 연구로 돌리고(K. Choi, 1991, 1993 등) 본고에서는 우선 간단한 특징만을 소개하고 이어서 (17)과 같은 한국어 복수 표현의 구조가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떤 이점들이 있는가를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우선 이 구조의 주요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8) 가. X-부가 구조를 이루는 두 X 중 하나는 핵이고 다른 하나는 비핵 혹은 수식어 성분이다.

나. 핵 X는 전체의 범주를 결정하게 되는데, 한국어에서 핵 X의 위치는 (17)에서 보듯이 비핵의 앞에 온다. 즉 한국어에서 핵 X는 비핵 X를 선행한다.¹⁵⁾

다. X-부가 구조는 X의 Y 선택적 특성에 의해 생성되기도 하고 핵 X가 취하는 자질의 실현으로 생성되기도 한다.¹⁶⁾

이제 이 구조하에서 앞에서 S.-Y. Park(2022)이 한국어 복수 표지들에 대해 관찰한 내용 및 문제점들이 어떻게 파악되는지 소개하기로 한다. 먼저 중요한 점은 위 구조에서 복수 표지 앞 성분의 범주는 항상 N이고 그 결과도 N으로 같다는 점이다(이는

15) X-부가 구조를 이루는 두 X 중 핵의 위치 결정은 다음과 같은 핵 상관성 원리에 의하는 것으로 본다.

(i) 핵 상관성 가설
한 언어의 XP 층위에서 핵이 왼쪽 경계에 위치하면, X 층위에서는 오른쪽 경계에 위치하며, 그 반대도 성립한다.

16) 핵 X의 선택적 특성에 의한 사례로는 ‘철수만’과 같은 특수조사 구성, 장형부정구문 등을 들 수 있으며, 핵 X가 취하는 자질의 실현의 사례로는 ‘철수가/철수를’과 같은 구조적 조사의 사례를 들 수 있다.

Halkomelem어의 복수 표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이들 복수 표지가 명사와 같이 하고 또한 그 결과도 명사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포착하고 있는데, 먼저 후자 즉 이들 복수 표지가 어떤 것이든 이들을 가진 전체 표현의 범주가 N이라는 점은 (18나)에 의해 포착이 된다. 즉 (18나)에 의해 N이 어떤 복수 표지와 결합을 하든 항상 그 결과는 그 앞 성분의 범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11)의 구조를 토대로 할 때, 각 핵의 선택적 특성이 서로 다른 범주적 성격의 보충어로 파악된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2.1.2.1. N-부가 구조의 생성

한편 각 복수 표지들은 어떻게 위와 같은 구조를 갖게 되는가? 이와 관련해 필자는 일단 ‘-히’, ‘-네’와 ‘-들’의 생성 기원이 서로 다르다고 본다. 즉 ‘-히’, ‘-네’의 경우는 이들의 N-선택 특성에 의해 N-부가 구조가 생성되는데 반해, ‘-들’의 경우는 N이 갖는 [복수] 자질의 실현이라고 본다.¹⁷⁾ 이와 같이 달리 보는 주된 이유는 ‘-히’, ‘-네’의 출현 양상과 ‘-들’의 출현 양상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이다. 즉 전자는 명사하고만 같이 나타날 뿐 아니라, 지극히 제한된 선택적 특성을 갖는 데 반해, ‘-들’의 경우는 다음 예에서 보듯이 명사뿐 아니라, 지시사 및 여러 다른 범주와도 같이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성]이라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 (19) 가. 학생들이 일찍 왔다.
- 나. 우리는 이들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 다. 학생들이 일찍들 왔다.

이런 예들에 나타나는 ‘-들’을 독립된 핵으로 보게 되면 결국 ‘학생들’, ‘이들’, ‘일찍들’의 범주를 같은 것으로 파악해야 하나 위 예들은 그렇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즉 ‘학생들’은 조사를 취함으로써 해서 ‘학생’과 같은 명사적 성격을 가지고 ‘이들’은 ‘조건’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가짐으로써 해서 ‘이’라는 지시사와 같은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일찍들’의 경우도 ‘일찍’의 부사적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들’이 여러 범주의 X를 선택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복수]라는 의미/통사적 자질을 허용하는 범주에 실현된 [복수] 자질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히’, ‘-네’의 선택 특성은 어떻게 파악되나?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해석적 특성을 갖는가? 본고의 입장에 의하면 둘은 모두 N을 선택하는 특성을 공유하지만, 그 차이는 선택되는 N의 성격 및 결과 표현의 성격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필자는 구체적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17) 이는 구조적 조사를 명사가 갖는 격 자질의 실현으로 보는 입장과 같다(K. Choi(2009)를 참고할 것). 그리고 이 제안은 한국어의 복수 표지가 일치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포착한다.

(20) 가. ‘회’는 singleton set(한-원소 집합) 즉 단일 단수 개체를 외연으로 하는 N과 결합하여 그 외연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확장한다.

$$\{N + a\}$$

나. ‘네’는 non-singleton set(비 한-원소 집합) 즉 둘 이상의 임의의 단수 개체로 되어 있는 N과 결합하여¹⁸⁾ 그 외연을 다음과 같이 확장한다.

$$\{N의 외연 중 단일 구성원 + 그 단일 구성원과 맥락상
관련되는 임의의 수의 단수 개체\}$$

여기서 말하는 N의 외연은 타입 이론적으로는 <e, t> 즉 성질(property) 혹은 속성(attributive) 용법에 대응되는 개념으로¹⁹⁾ 이 제안은 결국 한국어의 복수 표지 ‘회’, ‘네’가 기본적으로 N의 외연 변경 혹은 확장의 기능을 갖고 있는 표현임을 의미한다. 달리 말해, 이들 복수 표지가 붙는 N이나, 결과 N이나 공히 단수 개체의 집합, 즉 <e, t>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N의 원래 외연과 결과 외연의 성격이 이들 복수 표지의 부착에 의해 서로 달라진다는 제안이다.

2.1.2.2. ‘회’의 경우

이런 방식은 어떤 이점을 갖고 있나? 먼저 ‘회’가 왜 ‘나/저’, ‘너’하고만 결합되는가 가 자연스럽게 설명이 된다. ‘나/저’,²⁰⁾ ‘너’는 기본적으로 “화자” 및 “청자”를 가리키는 데, 본고는 그 기본 의미를 다음과 같이 본다. 즉 이들 어휘가 가리키는 개체가 “화자”, “청자”이기는 하나, 그 집합의 구성원이 단일 화자, 단일 청자인 한-원소 집합(singleton set)으로 본다.²¹⁾

(21) 가. [나/저] = {화자}

나. [너] = {청자}²²⁾

18) S.-Y. Park(2022)의 관찰에 의하면 이 N은 고유 명사, 친족 명사 등으로 제한된다. 이 N의 성격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K. Choi(2025b)를 참고할 것.

한편 필자는 ‘회’, ‘네’의 이런 성격을 토대로 한국어 명사의 기본 외연의 성격이 Chierchia(1998) 및 Borer(2005)의 제안과 달리 단수 개체와 복수 개체의 집합 혹은 종류(kind)가 아니고 단수 개체만이라고 본다.

19) 이 속성 용법에 대응하는 지시 용법 혹은 지시 해석은 NP를 토대로 형성되는 DP가 갖는 것으로 보며 이 지시 용법/해석에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보다 구체적 내용은 3절에서 소개된다.

20) ‘나’와 ‘저’의 외연은 “화자”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같으나, ‘저’에는 “겸양”의 의미가 첨가되는 것으로 본다.

21) 이 어휘의 화자, 청자가 실제로 어떤 개체를 가리키는가는(즉 이 어휘의 지시 해석)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즉 이 어휘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말한 화자 및 그 문장을 듣는 청자로 결정될 것이다.

22) “청자”를 가리키는 다른 어휘로 ‘당신’, ‘자네’ 등이 있지만, 이들은 한-원소 집합이 아니므로 배제된다. 즉 이들은 ‘당신들’, ‘자네들’에서처럼 ‘들’과의 결합을 허용하며 해서 기본적으로 이들 N의 외연은 {청자1, 청자2, ...}인 것으로 보인다.

‘나/저’, ‘너’에 대한 이런 의미 규정은 비슷한 의미를 갖는 일반 명사인 ‘화자’, ‘청자’와는 다음과 같이 다르다.

- (22) 가. [화자] = {화자1, 화자2, 화자3, ...}
- 나. [청자] = {청자1, 청자2, 청자3, ...}

즉 일반 명사인 ‘화자’, ‘청자’도 “화자”, “청자”를 가리키기는 하나, 이들 명사는 둘 이상의 “화자”, “청자”를 가리키는 집합으로 규정된다. 이런 차이에 대한 근거로 ‘들’의 부착 여부를 들 수 있다. 즉 ‘나/저’, ‘너’는 ‘들’과 결합하지 못하나, ‘화자’, ‘청자’는 ‘들’과의 결합을 허용한다.

- (23) 가. *나들, *저들, *너들
- 나. 화자들, 청자들

이는 물론 ‘들’이 단수 개체의 합을 통해 복수 개체를 만드는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Y. Jun, 2004, 2007 등 참고). 즉 기본적으로 ‘들’이 복수 개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N의 외연이 둘 이상의 단수 개체로 되어 있어야 가능한데, ‘나/저’, ‘너’가 (21)에 의하면 하나의 단수 개체로만 되어 있으므로 ‘들’의 결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에 반해, ‘화자’, ‘청자’의 경우는 그 구성원이 둘 이상이므로 ‘들’의 결합을 허용한다.

한-원소 집합이라는 개념을 통한 이와 같은 분석에 대해 몇 가지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 있다. 먼저 한국어에 ‘나/저’, ‘너’ 외로 한-원소 집합의 성격을 갖는 어휘는 없는가?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후보로 답화상에서 주로 한 개체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는 고유 명사가 있다. 고유 명사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는 하나, 같은 이름을 가진 여러 개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유 명사 N은 한-원소 집합이 아닌 것으로 규정된다. 예를 들어, ‘철수’라는 N의 외연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²³⁾

- (24) [철수] = {철수1, 철수2, 철수3, ...}

고유 명사 N의 외연은 한-원소 집합이 아니므로 고유명사와 ‘희’는 결합되지 못하는 반면, ‘들’과는 결합이 가능하다.

23) 중요한 점은 실제 답화에서는 맥락에 의해 실제 지시 대상이 한 개체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고유 명사 N의 외연(즉 속성 용법)은 비 한-원소 집합이나, DP로서의 지시 해석이 통상 한 개체를 가리키게 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13)의 예에서 보듯이 고유 명사가 여러 개체를 가리키는 예들도 많이 있다. 즉 고유 명사의 단일 지시가 유일한 양상은 아니다.

(25) 가. *철수희

나. 철수들

이어 ‘나/저’, ‘너’와 유사하게 단일 단수 개체를 가리키는 해석을 갖는 ‘그’나 ‘그 학생’의 경우를 보자. 고유 명사에 대한 앞선 분석의 입장에서 보면 이 경우도 큰 문제는 아니다. 앞선 분석에 의하면 DP가 갖는 지시 해석이 단일 단수 개체를 가리킨다 해도 N의 외연적 특성은 한-원소 집합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학생’의 경우는 쉽게 분석이 된다. 이 표현은 지시사와 명사의 결합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학생’이 단일 단수 개체를 가리키는 해석을 갖게 되는 것은 ‘학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시사의 역할 때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학생’이라는 N은 통상의 보통 명사처럼 비 한-원소 집합의 성격을 가지지만(이는 ‘학생들’처럼 ‘-들’과의 결합을 허용한다는 점이 입증한다), 지시사가 그 중 맥락에 맞는 단일 단수 개체만을 지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의하면 ‘그 학생’이 단일 단수 개체를 가리킴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희’가 비문법적인 이유는 ‘학생’ N의 외연이 한-원소 집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봐야 하나? ‘*그희’에서 보듯이 ‘그’도 ‘-희’와의 결합이 허용이 되지 않는다. ‘그’에 대한 일반적 견해는 ‘나/저’, ‘너’와 같은 계열의 인칭 대명사라는 것이지만, ‘그’가 단일 개체를 가리킨다는 점을 토대로 ‘그’의 N 외연을 한-원소 집합으로 보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우선 한-원소로서의 ‘그’의 성격이 어떻게 규정될 수 있을 지가 불분명하다. 더 나아가 “화자”, “청자”가 아닌 “제3자”로 규정될 수 있다 해도 ‘그’는 ‘그들’에서 보듯이 ‘-들’과의 결합을 허용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그’에 대한 K. Choi(2013)의 제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필자는 한국어의 ‘그’가 영어의 *he/she/it*과 같은 대명사 계열의 표현이 아니라, ‘그+ec’의 성격을 갖는 표현으로 보고 있다.²⁴⁾ 즉 ‘그’가 단일 단수 개체를 가리킴에도 불구하고 ‘*그희’가 나쁜 이유는 ‘그’와 같이 나타나는 ec가 한-원소 집합이 아니기 때문이다.²⁵⁾

이상의 검토가 맞다면 ‘-희’가 ‘나/저’, ‘너’하고만 결합이 된다는 사실은 더 이상 특수한 혹은 예외적 상황이 아니다. ‘-희’의 어휘적 성격에 맞는 체계적 상황인 것이다. 이제 ‘-네’에 대한 검토로 넘어가기 전에 (20가)의 alpha라는 규정의 내용을 소개하기로 하자.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우리’, ‘너희’, ‘저희’가 가리키는 대상이 ‘나/저’, ‘너’의 한-원소 집합을 넘어서서 이들 표현이 담긴 문장의 발화 당시에 외연의 확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포착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리고 그 외연의 확장이 고정이 안 되어 있으며 맥락에 따라 변동이 가능함을 포착하기 위한 규정이다. 다음 예들은 이 알파의 범위로 공집합도 가능하고(이 경우 ‘우리’, ‘저희’, ‘너희’는 {화자}, {청자}로 고정된다) 다른 청자 또는

24) 필자는 K. Choi(2013)에서 ‘그’ 뒤에 오는 공범주의 성격을 [+사람]인 pro로 봤으나, Y.-H. Kim(2016)에서 지적되었듯이 ‘그’ 뒤의 공범주를 논항적 성격을 갖는 통상의 pro로 보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그동안 편의상 pro로 표기했으나, 김용하의 지적을 받아들여 그냥 공범주임을 나타내는 ec(empty category)로 표기한다.

25) ‘*그희’, ‘그들’, ‘*그네’와 관련된 보다 다 자세한 논의는 K. Choi(2025b)를 참고할 것.

제3자도 가능함을 보인다. 우선 (26)의 예들은 ‘나-희’의 보충형으로 파악된 ‘우리’가 ‘나’를 뜻하는 단수 해석을 가진다는 점 그리고 복수 해석일 경우 청자가 포함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3자도 포함될 수 있음을 보인다(Ko & Koo, 2008, p. 72; Lee & Chae, 1999, p. 150 등 참고).

- (26) 가. 우리 아내, 우리 아버지 {화자+공집합}
 나. 우리가 지금부터 친구 사이이니 앞으로 사이 좋게 지내자 {화자, 청자}
 다. 너는 우리의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니? {화자, 청자, 제3자}

이런 양상은 ‘우리’의 겸양 형태인 ‘저희’ 그리고 ‘너희’에서도 관찰된다.

- (27) 가. 언제라도 저희 집에 들러 주세요 {화자+공집합}26)
 나.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니 {화자+공집합}
 다. 저희를 살려주는 셈치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화자, 제3자}
 (28) 가.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청자+공집합}
 나. 너희가 모두 착한 어린이로구나. {청자, 청자1, 청자2, ...}
 다. 너희에게 모두 다시 기회를 주겠다.

2.1.2.3. ‘네’의 경우

이제 ‘네’의 경우를 보자. (20)에 의하면 ‘-희’와 ‘-네’는 그 앞 명사의 N 외연을 확장시킨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대상 N의 성격이 다를 뿐 아니라, 결과 N의 성격도 다르다. 한 마디로 ‘-희’는 한-원소 집합의 성격을 갖는 N하고만 결합이 되는 데 반해, ‘-네’는 비 한-원소 집합 성격의 N과 결합한다. 이 점에 의해 ‘*나네’, ‘*저네’가 왜 나쁜가가 설명이 된다.27) 한편 ‘-네’와 결합이 가능한 아래 N의 예들은 모두 한-원소 집합이 아니라 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28)

26) ‘저희’의 알파에 청자가 포함되는 사례가 없는 것은 기존 문법서들이 지적하였듯이 겸양의 뜻이 청자에 적용되기는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Ko & Koo, 2008, p. 73; Lee & Chae, 1999, p. 150 등 참고).

27) 그러나 ‘너네’는 예외로 남는다. ‘너네’는 다음 예에서 보듯이 허용된다.

(i) 너네 엄마, 너네 남편, 너네 아버지,

28) ‘-네’가 (20나)의 규정에 의해 기본적으로 복수성을 가지나, 아래 예에서처럼 지시사와 함께 할 경우 단일 개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양상 자체가 (20나)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이/그/저 학생’에서처럼 보통 명사의 경우도 지시사와 함께 하면 단일 개체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i) (이/그/저) 여편네, (이/그/저) 노인네,

- (29) 가. 철수네, 영미네, ...
- 나. 우리네, 너희네, 저희네, 당신네, ...
- 다. 아들네, 딸네, 조카네, 형님네, ...
- 라. 김가네, 박씨네, ...

2.1.2.4. ‘-들’의 경우

마지막으로 ‘-들’의 의미적 성격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거의 의견 일치를 보고 있는데, 형식의미론적으로 단수 개체의 집합으로부터 단수 개체의 합, 즉 복수 개체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Y. Jun(2004, 2007)을 참고할 것). 이 변화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 (30) 가. ‘-들’과 결합하는 N의 외연은 단수 개체로 된 비 한-원소 집합의 성격을 가진다.
- 나. ‘N-들’의 외연은 단수 개체의 합 즉 복수 개체의 집합이다.

(30가)는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들’이 한-원소 집합과는 결합이 되지 못함을 보인 것이다.

2.1.3. 중간 정리

지금까지 한국어 복수 표지 ‘-회’, ‘-네’, ‘-들’에 대해 (18)의 관점에서 이들 각각의 해석적 성격이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가를 N의 외연의 변경 혹은 확장이라는 시각하에서 살펴 보았다. 이제 이런 제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자. 우선 이들 제안에 의하면 이들 표지가 왜 복수 해석을 가지며 그리고 그 차이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좀 더 분명해진다. 우선 ‘-회’나 ‘-네’는 N이 원래 갖고 있던 외연에 임의의 수의 단수 개체를 추가함으로써 해서 복수 해석이 유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추가된 개체들이 담화상 N이 가리키는 단수 개체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것이 “연대” 해석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들’의 경우는 복수 개체를 가리키게 됨으로 해서 복수 해석을 가지게 되지만, 복수 개체의 생성이 단수 개체의 단순 “합”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회’, ‘-네’와는 다르다.

(18)의 제안이 갖는 두 번째 장점은 (16)이 보여주는 이들 복수 표지의 어순 양상이 자연스럽게 포착이 된다는 점이다. 우선 ‘-회’는 그 앞의 명사가 한-원소 집합이어야 하므로 ‘-네’나 ‘-들’ 뒤에 올 수 없다. 이어 ‘-들’은 복수 개체를 만들어내므로, 그 뒤에 ‘-네’가 올 수가 없다. ‘-네’는 단수 개체만을 외연으로 갖는 N하고만 결합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분석은 이들 표지 간의 위계적 혹은 어순적 차이가 파생 대 굴절의 구분과

는 무관함을 말한다. 우선 ‘-히’가 ‘나/저’, ‘너’의 세 어휘하고만 결합하는 양상이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히’의 선택적 성격의 체계적 결과임을 보였다. 한편 S.-Y. Park(2022)은 ‘-네’가 친족 어휘, 대명사 등하고만 결합한다는 점을 들어 결합 어휘가 제한적이라고 보고 이를 파생의 한 특성으로 봤으나, 고유명사와의 결합이 가능하다는 점은 파생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라 하겠다. 해서 S.-Y. Park(2022)에서 ‘-히/-네’와 ‘-들’의 차이가 파생 대 굴절의 차이임을 보이는 근거로 세운 자료들도 달리 분석된다.

먼저 ‘-히/-네’와 ‘-들’이 보이는 접속 양상의 차이를 보자.

(31) 가. *착한 [영이와 철수]네를 만났다.

나. 착한 영이네와 철수네를 만났다.

(32) 가. 파란 [새와 고래]들을 봤다.

나. 파란 새들과 고래들을 봤다.

즉 ‘-히/-네’는 접속구와 결합이 되지 않으나, ‘-들’은 접속구와 결합이 되는데, 이는 ‘-히/-네’가 파생인데 반해, ‘-들’이 굴절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파생과 굴절 개념을 이용하지 않고도 위 대비는 간단히 설명된다. 먼저 (31가)의 비문법성은 물론 ‘-히/-네’가 N을 선택한다는 특성에 의해 설명이 된다. 즉 ‘-히/-네’는 XP 상태의 접속구와는 애초에 결합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 (32가)의 수용성은 어떻게 봐야 하나? 우선 ‘-들’이 N이 갖는 [복수] 자질의 실현이라고 보는 본고의 입장에 의하면 (32가)에서와 같은 구조적 파악 즉 ‘-들’이 접속구에 붙는 것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 ‘-들’은 ‘고래’가 갖는 [복수] 자질의 실현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면 왜 (32가)의 ‘새’는 (32나)의 ‘새들’과 같은 복수 해석을 가지는가? 이는 ‘고래들’의 ‘-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새’ 자체가 복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본다. 즉 널리 알려져 있듯이 한국어의 영형 명사, 즉 ‘-들’이 없는 명사는 단수 해석과 복수 해석을 가질 수 있으며(이후의 2.1.4의 논의를 참고할 것) (32가)의 ‘새’가 (32나)의 ‘새들’과 같은 복수 해석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라고 본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31)에서의 복수 표지가 ‘-네’인데 반해, (32)에서의 복수 표지는 ‘-들’이라는 점이다. 앞에서 봤듯이 둘이 같은 복수 해석을 가지지만, 그 내용은 다른데, ‘-네’는 맥락에 의거한 “연대” 해석을 가지나, ‘-들’은 단순 복수의 해석을 가진다는 점이다. 그런데 통상 영형 명사에 대해 인정되는 복수 해석이 “연대” 해석이 아니라, 단순 복수 해석이라는 점에서 (32가)의 ‘새’와 (32나)의 ‘새들’이 서로 비슷한 해석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지만, (31)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점이다.

‘-히’와 ‘-네’가 파생의 영역임을 보이는 두 번째 근거로 S.-Y. Park(2022, (24))은 ‘우리’와 같은 보충형이 있음을 보이고 이런 보충형 그리고 ‘-히’와 ‘-네’라는 형태소의 출현을 위해 (33)과 같은 어휘 삽입 기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히’와 ‘-네’가 동반 출현할 수 없음을 예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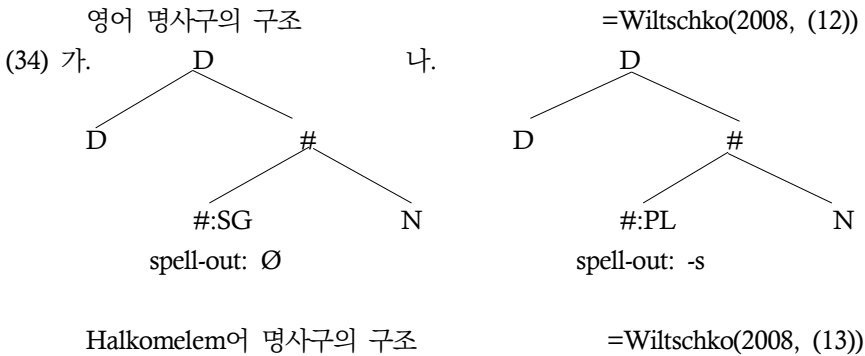
(33) 가.	n, [+Pl _{gr}], [1 _{person}]	<-->	우리
나.	n, [+Pl _{gr}]	<-->	-희 / {저, 너}
다.	n, [+Pl _{gr}]	<-->	-네/ 기타(elsewhere)

=S.-Y. Park(2022,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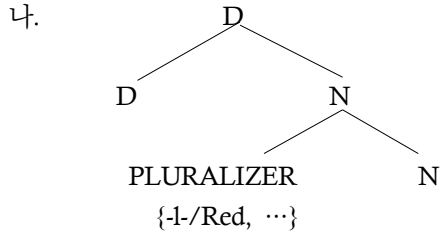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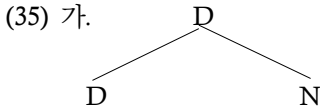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그렇지 않음을 보았다. 즉 ‘우리네’, ‘너희네’, ‘저희네’와 같은 형태가 가능하며 이는 결국 ‘-희’와 ‘-네’가 서로 별개의 복수 표지로 취급되어야 함을 보인다.

2.1.4. 한국어의 복수 표지들은 핵인가 수식어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어의 복수 표지를 핵보다는 수식어로 보는 것이 X-부가 구조 이론을 통해 가능할 뿐 아니라, 여러 장점이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그런 구조를 통해 명사와 복수 표지들 간의 의미 관계가 어떤 성격을 지니며, 각 복수 표지들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 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어 복수 표지가 핵인가 아니면 수식어인가의 논제를 Wiltschko(2008)의 제안과 관련하여 간단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²⁹⁾ Wiltschko는 영어와 Halkomelem어의 복수 표지의 비교를 통해 두 언어 간의 차이가 복수 표지가 통사 핵으로 실현되느냐 아니면 수식어 혹은 비핵으로 실현되느냐의 차이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의하면 두 언어의 복수 표지의 구조적 차이는 다음과 같다.



29) 한국어의 복수 표지 ‘-들’을 핵보다는 수식어로 봐야 한다는 견해는 Kwon & Zribi-Hertz(2004); Kim & Melchin(2018); Park & Park(2020)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특히 Wiltschko(2008)의 분석에 기반을 둔 Kim & Melchin(2018)의 논증은 본고의 논증과 거의 궤를 같이 한다. 또한 한국어에서 합성어 및 파생어 내 ‘-들’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토대로 ‘-들’의 수식 대상이 root가 아니라, nP라고 한 점도 본고의 N 수식 제안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root-n을 결국 N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일한 차이는 수식 대상의 투사의 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Kim & Melchin(2018)은 최대투사로서의 nP에 부가된다고 보는 반면, 본고는 단어 차원의 N에 부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차이가 notational variant일지 아닐지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는다.



그리고 Wiltschko는 두 언어의 복수 표지 간에는 아래와 같은 네 가지 큰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바로 위 구조적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³⁰⁾

	영어	Halkomelem어
(36) 가.	복수 해석을 위한 복수 표지의 필수성 여부	필수적 수의적
나.	수일치의 필수성 여부	필수적 수의적
다.	합성어 내 복수 표지의 허용 여부	불허 허용
라.	파생어 내 복수 표지의 허용 여부	불허 허용

=Wiltschko(2008, Table1)

해서 한국어의 복수 표지가 핵보다는 수식어적 성격을 갖는다는 본고의 입장이 맞다면 (36)의 네 가지 성격과 관련해 한국어는 Halkomelem과 같은 성격을 가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 예측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우선 맞는 예측 양상을 보여주는 (36가, 나)의 경우를 보자.

(36가)는 복수 표지가 없는 명사(이후 영형 명사로 부른다)의 해석 양상과 관련이 있는데, Halkomelem어에서 복수 표지 없이도 복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은 바로 영형 명사가 복수 해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아래의 예가 보여주고 있다.³¹⁾

(37) 가.	te	lhíxw	swíweles
	DET	three	boy
	‘the three boys’		
나.	te	lhíxw	swóweles
	DET	three	boy.PL
	‘the three boys’		=Wiltschko(2008, (3))

한국어도 마찬가지로 양상을 보인다. 즉 한국어의 영형 명사가 복수 해석을 가진다는

30) 이 외에도 이 구조적 차이 및 추가 가정에 의해 설명이 되는 추가 차이들이 있으나 이에 대한 검토는 지면상 별도의 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31) 지면의 제약상 영어의 양상을 보여주는 예의 제시는 생략한다.

지적은 여러 연구에서 있어 왔으며(B. Kang, 1994, 2007, 2008; M.-H. Paek, 2002; H.-P Im, 2000; Y. Jun, 2004, 2007 등 참고) 다음 예들이 이를 보여준다.³²⁾ 즉 복수 해석을 위해 ‘-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양상인 것이다.

- (38) 가. 공원에 들고양이가 많다.
 나. 철수가 모임에 쓰려고 사과 다섯 개를 사왔다.

이어 수 일치와 관련해서도 한국어는 Halkomelem어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Halkomelem어의 determiner에는 복수형과 단수형이 있는데, 다음 예들은 determiner와 명사 간의 수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 (39) 가. t'ílém ye s-í:wí:qe 나. t'ílém te s-í:wí:qe
 sing DET.PL man.PL sing DET man.PL
 ‘The men are singing.’ ‘The men are singing.’
 다. t'ílém ye swíyeqe 라. t'ílém te swíyeqe
 sing DET.PL man sing DET man
 ‘The men are singing.’ ‘The man is singing.’
 =Wilschko(2008,(6))

한국어에는 명사구 내에서 명사 외에 ‘-들’이 올 수 있는 범주로 지시사가 있는데, 다음이 이를 보여준다.

- (40) 가. 우리는 이들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저들 학생 사이에 뚜렷한 합의가 아직 없다.
 다. 그들 일행이 제주도에서 관원에게 붙잡혔다.

그리고 이런 ‘-들’ 지시사는 ‘-들이 없는 지시사(이를 이후 영형 지시사라 부른다)와 분명한 해석적 차이를 보여준다. 즉 명사가 영형 지시사와 같이 하는 경우는 단일 단수 개체만을 가리키는데 반해, ‘-들’ 지시사와 같이 할 경우에는 둘 이상의 단수 개체를 가리키는 해석을 갖는다. 즉 ‘-들이 복수성 해석을 유발하며 이는 결국 명사구 내 ‘-들’을 가질 수 있는 표현에 명사 외에 지시사가 있음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 두 표현 간의 수

32) Halkomelem어의 영형 명사가 단수, 복수 해석을 가지는 것에 대한 Wilschko(2008)의 분석은 개별 명사의 원래 외연이 단수 개체 및 복수 개체의 집합의 성격을 가진다는 Link(1983)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다. 본고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앞서 각주 18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필자는 명사의 기본 외연은 단수 개체의 집합으로만 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를 토대한 DP는 종류(kind) 지시 해석, 집단(group) 지시 해석 및 단일(singular) 지시 해석의 세 가지 가능성을 가지는데, 집단 지시 해석과 단일 지시 해석이 각각 복수 및 단수 해석에 대응되는 것으로 본다. 자세한 내용은 3절에서 소개된다.

일치가 Halkomelem어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다음 예들이 보여준다.

- | | |
|----------------|----------|
| (41) 가. 이들 조건들 | 나. 이 조건들 |
| 다. 이들 조건 | 라. 이 조건 |
| (42) 가. 저들 학생들 | 나. 저 학생들 |
| 다. 저들 학생 | 라. 저 학생 |

즉 수 일치가 필수적인 영어와 성격이 같다면 (41나, 41다), (42나, 42다)는 비문법적이어야 하나 그렇지 않다.

한편 한국어의 파생어 및 합성어 내부에 복수 표지가 허용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아래 예들은 일단 복수 표지가 허용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파생어의 경우³³⁾

- (43) 가. ‘-적’: ‘인간적/*인간들적’, ‘민족적/*민족들적’, ‘개인적/*개인들적’, ...
 나. ‘-질’: ‘장난질/*장난들질’, ‘가위질/*가위들질’, ‘걸레질/*걸레들질’, ...
 다. ‘-스럽-’: ‘어른스럽-/*어른들스럽-’, ‘비밀스럽-/*비밀들스럽-’, ...
 라. ‘-롭-’: ‘해롭-/*해들롭-’, ‘향기롭-/*향기들롭-’, ...

합성어의 경우

- (44) 가. 기와집/*기와들집, 산나물/*산들나물, 손목/*손들목, ...
 나. 남자 배우/*남자들 배우, 건강 식품/*건강들 식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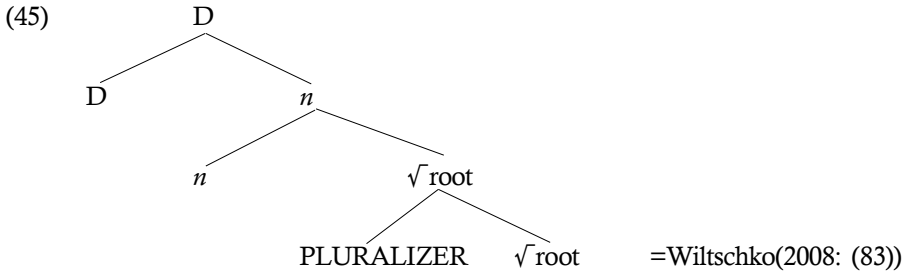
이와 같이 (36)과 관련하여 양면성을 보이는 한국어 복수 표지의 성격에 대한 최종적 결정은 시기 상조일지 모르나, 본고에서는 (43, 44)의 양상이 한국어 복수 표지를 수식어로 보게 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는 물론 한국어의 복수 표지를 수식어로 보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43, 44)에 대한 해결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해결책은 Halkomelem어의 (36다, 라)의 양상에 대한 Wiltschko의 제안과 연관이 있다.

Wiltschko는 Halkomelem어의 복수 표지와 결합하는 성분을 처음에는 N으로 봤으나(앞의 (35나) 참고), (36다, 라)의 양상을 위해 결합 대상을 root로 수정하여³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33) ‘-답-’의 경우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즉 복수 표지를 허용하는 경우와 허용하지 않는 경우로 나뉜다.

(i) 가. ‘어머니답-/어머니들답-’, ‘천재답-/천재들답-’, ‘어른답-/어른들답-’, ...
 나. ‘고향답-/*고향들답-’, ‘인간답-/*인간들답-’, ...

34) 이는 Halkomelem어에서 복수 표지가 명사뿐 아니라, 형용사, 동사와도 같이 할 수 있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자세한 논의는 Wiltschko(2008, 5.3.1)를 참고할 것.



이 제안을 통해 우선 Halkomelem어의 복수 표지는 root와 결합이 가능하다. 이어 파생 접사들을 범주화 성분으로 보는 입장에 의하면(Borer, 2005 등), 결국 파생 접사 내부에 복수 표지가 오는 양상이 된다. 합성어의 경우는 root에 대한 합성어가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결국 합성어 내부에 복수 표지가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파생 접사와 합성어에 대한 이런 가정하에서 파생어, 합성어와 관련된 한국어와 Halkomelem어의 복수 표지 간의 차이는 다음으로 파악된다.

- (46) 한국어 복수 표지는 N과 결합하고 Halkomelem어의 복수 표지는 root와 결합한다.

여기서 말하는 N은 (45)의 구조상의 *n*을 말하는데, 파생 접사와 합성어가 root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때, 한국어 복수 표지가 파생어나 합성어 내부에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한국어 복수 표지가 N하고만 결합이 되기 때문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런 해결책이 올바른 방향에 있다고 본다면 한국어의 복수 표지는 독립적인 핵이기보다는 비핵 즉 수식어의 성격을 가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결론이 맞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어 복수 표지 ‘-들’을 D 혹은 DP 수식어로 보는 Wiltschko(2008)의 제안에 대한 S.-Y. Park(2022)의 반박도 검토해야 한다. 박소영은 ‘-들’을 DP 수식어로 보는 Wiltschko의 제안과 핵으로 보는 본인의 제안 사이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각 항목과 관련된 한국어의 실제 양상이 핵 분석의 예측과 맞음을 지적하고 있다.

	수식어 분석	핵 분석
(47) 가. 위치	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정됨.
나. 수분류사와의 관계	동반 출현 가능	동반 출현 불허
다. 복수 해석	동일함.	다름.
라. 분포	항상 수의적	항상 수의적이 아님.

=S.-Y. Park(2022, Table 4)

본고 또한 한국어 복수 표지의 성격을 수식어로 봄으로 해서 Wiltschko(2008)과 같은 입장을 취하나, 박소영의 이런 비판 모두가 본고의 제안에는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특히 (47가)와 (47라)에 대해서는 본고의 입장과 Wiltschko의 입장이 복수 표지 ‘-들’을 수식어로 본다는 점에서 같다 해도 ‘-들’의 수식 대상을 달리 보는 본고의 입장에 의하면 ‘-들’의 위치와 분포에 대해 다른 예측을 하게 되므로 수식어 분석이 반드시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게 된다.³⁵⁾

먼저 (47가)와 관련하여서 복수 표지에 대한 본고의 입장에서 이들 간의 어순은 고정된다. 즉 한국어 복수 표지에 대한 본고의 입장은 복수 표지들이 N과 함께 (17)에서와 같은 N-부가 구조를 이룬다는 것이며 해서 복수 표지를 수식어로 본다 해도 이 구조에서 복수 표지의 위치는 N의 뒤로 항상 고정된다. 특히 ‘-희’, ‘-네’, ‘-들’ 간의 위치가 서로 고정되어 있는데, X-부가 구조를 지지하는 본고의 입장에서는 각 어휘들의 X-선택적 성격에 의해 어순이 고정된다. 그에 반해, S.-Y. Park(2022)의 핵-기반 분석에서는 이들 간의 위계에 의해 위치가 고정되기는 하나, 왜 그런 위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찾아 볼 수 없다.

(47라)는 XP 수식어의 일반적 성격에 기댄 비판인데 본고의 입장에 의하면 ‘-들’은 DP 수식어가 아니라, N 수식어(혹은 N-부가 구조 내 비핵)일 뿐 아니라, 명사가 갖는 [복수] 자질의 실현으로 보므로 명사구 내 다른 성분과의 관련성에 의해 그 분포가 결정될 여지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 점에서 핵 분석과 같은 예측을 하는 셈이 된다. 다만 박소영은 아래 예들을 한정성 해석을 위해 핵으로서의 복수 표지 ‘-들’이 필수적으로 출현하는 사례로 들었는데, ‘-들’을 수식어, 즉 비핵으로 보더라도 왜 (49나)는 나쁘고 (49라)가 좋은가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예들이 수-분류사를 포함한 예문이므로 박소영의 이 주장에 대한 검토는 3절로 넘기기로 한다.

- (48) 나는 어제 학생 세 명을 만났다.
- (49) 가. *나는 학생을 칭찬했다.
- 나. *나는 그 학생을 칭찬했다.
- 다. *나는 학생들을 칭찬했다.
- 라. 나는 그 학생들을 칭찬했다.

지금까지 박소영의 (2가)와 관련하여 다소 긴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논의를 통해

35) (47나)와 관련한 수식어 분석과 핵 분석의 예측 차이는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3나)와 같은 실제로 좋은 예를 수-분류사 구조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에 있다고 본다. 한편 (47다)에서 지적된 차이는 두 분석 간의 차이이기보다는 ‘-들’의 고유 기능상의 차이로 이해된다. 박소영은 ‘-들’의 고유 기능을 개별화로 보고 있는데, 해서 핵의 성격을 갖는 ‘-들’로 인해 영형과 ‘-들’ 형 사이에 해석적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수식어로서의 ‘-들’ 또한 개별화를 그 기능으로 한다면 수식어 분석에서도 해석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는 점에서 두 분석 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필자는 각주 7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B. Kang(2007, 2008)의 입장을 따라 개별화를 ‘-들’의 고유 기능으로 보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B. Kang(2007, 2008)을 참고할 것.

밝혀진 사항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50) 가. ‘-회’와 ‘-네’는 N-선택 성격이 서로 다른 별도의 복수 표지로 봐야 한다.
- 나. ‘-회’, ‘-네’, ‘-들’ 모두 명사와 결합하여 (17)에서와 같은 N-부가 구조를 만들어내며 이 구조에서 이들 복수 표지는 비핵 혹은 수식어의 성격을 갖는다.
- 다. 한국어와 Halkomelem어의 복수 표지의 수의성 그리고 수 일치의 수의성은 이들 언어의 복수 표지가 핵이기보다는 수식어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 라. 파생어 및 합성어 내부의 복수 표지의 출현과 관련된 한국어와 Halkomelem어 간의 차이는 (46)에 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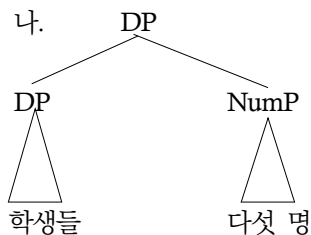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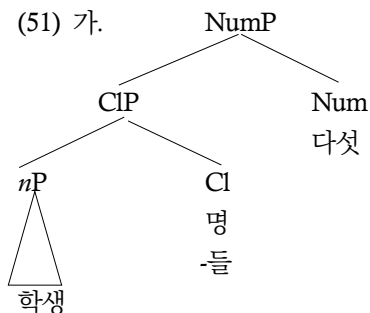
2.2. (2나)에 대한 검토

이제 (2나)에 대한 검토로 넘어가기로 한다. 사실 (2나)의 기본 정신은 Borer(2005)에서 찾을 수 있는데, S.-Y. Park(2022)이 한국어에서의 (3)의 대비를 설명하기 위해 채택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2나)가 (3)의 대비를 설명하기 위한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문제의 대비를 설명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사실 (3)의 대비는 (2나)의 제안만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2나)의 제안에 의하면 한국어에서 ‘-들’과 분류사가 같은 핵에 위치하므로 (3가)에서와 같은 동반 출현은 쉽게 배제된다(편의상 아래 (3)을 다시 옮긴다).

- (3) 가. ?*철수가 사과들 두 개를 먹었다.
- 나. 철수가 학생들 두 명을 찾고 있다.

그러면 (3나)는 왜 좋은가? S.-Y. Park(2022:(27a, b))의 해결책은 (3나)가 중의적 구조를 가진다는 것이다. 즉 (51가)에서와 같은 수-분류사 구조와 (51나)에서와 같은 이른바 동격 구조가 그것이다.



이 중 수분류사 구조는 (2나)를 여기므로 나쁘지만, 동격 구조로는 허용이 된다는 것이다. 이 동격 구조 제안은 아마도 영어의 동격 혹은 비제한적 관계절이 갖는 해석을 허용하는 구조로서 가능하다는 제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제안에는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3가)에는 왜 동격 구조가 허용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동격 구조의 한정성에 있다. 즉 (52)의 예에서 보듯이 영어의 동격/비제한적 관계절의 표제 명사는 담화상 이미 알려진 개체의 성격을 주로 가지는데 반해, (3나)의 ‘학생들’은 비한정 해석을 가질 수 있다.³⁶⁾

- (52) a. Ronald Reagan, who began his career as a radio announcer, came to hold the nation’s highest office.
 b. The current president of the company, who lives in Buffalo, could not attend the ceremony.

세 번째 문제는 한국어에서 전형적인 동격 구성의 양상을 갖는 문장의 양상이 (3나)와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Y.-T. Hong(2014)에 의하면 기존 연구에서 동격 구성으로 파악되는 구문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다.

확인 구문

- (53) 가. 나는 제주도, 그 아름다운 섬을 잊어 본 적이 없어.
 나. 나는 김철수, 그 시인을 잘 알아.

36) 각주 5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S.-Y. Park(2022)도 한국어 ‘-들’을 한정성 표지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특정 맥락 특히 수분류사와 함께 할 때에는 한정성을 필수적으로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필자는 이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 (3나)의 ‘학생들 두 명’이 비한정성 해석을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래 예문에서는 한정성 해석을 얻기가 거의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i) 철수가 힘이 좋은 장정들 세 명을 구하고 있다.

속성 구문

(54) 가. 나는 아름다운 섬 제주도를 잊어 본 적이 없어.

나. 나는 시인 김철수를 잘 알아.

이 두 구문 중 (3나)와 같은 문장을 동격 구조로 파악한 S.-Y. Park(2022)의 의도에 비추어 볼 때, (3나)에 비견될 수 있는 것은 확인 구문이 아니라, 속성 구문이라 할 수 있다. 주된 이유는 물론 확인 구문에서는 두 명사 성분 모두 한정 표현이나, 속성 구문에서는 앞 NP가 한정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속성 구문에서 앞 명사는 술어, 뒤 명사는 주어의 역할을 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앞 명사에서 계사의 출현이 가능하다는 점으로도 확인이 된다. 즉 영어의 동격 관계절과 마찬가지로 관계절의 모습으로도 가능하다.

(55) 가. 나는 아름다운 섬인 제주도를 잊어 본 적이 없어.

나. 나는 시인인 김철수를 잘 알아.

그러나 (3나)는 전형적인 동격 구조라 할 수 있는 속성 구문과 세 가지 점이 다르다. 우선 주어와 술어로 파악되는 성분 간의 어순이 서로 다르다. 즉 속성 구문에서는 술어 성분이 주어 성분보다 앞에 오나, (3나)에서는 주어 성분이 술어 성분보다 앞에 온다. 또한 (3나)에서는 주어가 비한정성일 수 있으나, 속성 구문에서는 비한정성 주어가 허용되지 않는다.

(56) 가. 나는 나의 고향 ***(그)** 아름다운 섬을 잊어 본 적이 없어.

나. 나는 이웃집 학생 ***(그)** 청년을 잘 알아.

마지막으로 속성 구문에서는 (55)에서 보듯이 술어 성분이 계사와 함께 관계절의 모습으로 가능하나, (3나)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57) *철수는 학생들 두 명을인/두명인을 찾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필자는 (3나)를 한국어의 동격 구조로 보지 않는다. 즉 (3나)는 동격 구조로서가 아니라, 수분류사 구조 그 자체라고 보는 것이다. 이는 물론 (3나)를 수분류사 구조로서 배제한 (2나)가 성립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3나)가 수분류사 구조로서 허용이 된다면 (3가)가 안 좋다는 점은 어떻게 파악이 되어야 할까? 사실 S.-Y. Park(2022)은 (3가)와 (3나)의 대비를 수분류사의 관점에서 파악했으나, ‘-들’ 이 영형보다 안 좋은 것은 수분류사의 출현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즉 B. Kang(2007, 2008); E.-J. No(2008); C.-W. Park(2010) 등에서 영형 명사는 무표형, ‘-들’ 형은 유표형으로 논의될 정도로 사물 명사나 보통 명사에서 ‘-들’의 출현이

더 부자연스러운 점은 수-분류사의 출현과는 무관한 현상으로 보인다.³⁷⁾

- (58) 가. 사과/??사과들
- 나. 종이/??종이들
- 다. 책/??책들
- 라. 가방/??가방들

그에 반해, 사람 명사나 동물 명사의 경우에는 ‘-들’과 영형 간에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59) 가. 학생/학생들
- 나. 사람/사람들
- 다. 강아지/강아지들³⁸⁾
- 라. 고양이/고양이들

이에 대한 기본적 설명은 Corbett(2000); M.-H. Paek(2002) 등에서 이미 제시되었는데, “유정성이 높은 사물이 더 잘 인식되고 구별된다는 사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B. Kang, 2007, p. 22). 즉 존재론적으로 개별 개체에 대한 인식이 가능한 명사라 해도 인지론적으로 유정성 명사가 그렇지 않은 명사보다는 개별 개체의 구별이 더 확실한 것으로 보이며 해서 그런 유정성 명사의 경우에 개별 개체의 확실한 구별을 전제

37) S.-Y. Park(2022)은 ‘-들’의 부착에 대해 추상 명사, 가산 명사 가릴 것 없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58, 59) 간의 대비는 가산 명사라 해도 ‘-들’의 출현이 같은 정도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데, 필자는 이런 차이는 결국 명사가 가리키는 개별 개체에 대한 인지적 필요성의 정도의 차이로 본다. 존재론적으로는 가산 명사 즉 개별 개체로 파악이 되어도 인지적으로 그럴 필요성의 정도는 개인별 차이가 있으며 그 필요성이 강한 명사는 ‘-들’의 부착이 자연스럽지만, 그 필요성이 약한 명사는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필자는 존재론적 기반하에서 혹은 Deal(2017)의 부분-기반 기준인 원자성, 분할성 등에 의해 mass(비가산)라 판단되는 다음 명사들은 한국어에서도 ‘-들’의 부착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i) 물, 우유, 술, ...

비가산 명사의 이런 성격은 가산 명사와 달리 개별 개체가 minimal part로서의 성격을 갖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는데, 다만 비가산 명사에 대해 맥락상 개별 개체로서의 인식이 가능한 경우에는 ‘-들’의 부착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본다. S.-Y. Park(2022)의 지적된 다음 예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본다.

(ii) 가. 마당 여기 저기에 물들이 있다.
나. 그라운드들로 가득찬 내 인생

38) ‘-들’ 표현의 수용성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판단이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Kim & Melchin(2018)에서는 (58)과 같은 무정 명사의 경우는 좋다고 본 반면, (59다, 라)와 같은 동물의 경우는 나쁘다고 보고 있다. 물론 동물 명사에 대해서는 화자간 변이를 인정하고 있다. 필자는 이런 화자간 변이는 결국 각주 37에서 얘기한 “인지적 개별화”의 필요성이 개별 화자별로 다르기 때문으로 본다. 즉 존재론적으로는 가산 명사 처럼 개별화가 분명한 명사라 해도 인지적 개별화의 필요성이 명사에 따라 그리고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본다.

로 한 ‘-들’의 사용이 저항감이 없거나 덜한데 반해, 그렇지 않은 무정 명사의 경우에는 확실한 구별이 불필요함으로 인해 ‘-들’의 출현에 저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파악은 추상 명사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추상 명사는 무정 명사와 달리 ‘-들’의 사용이 보다 더 자연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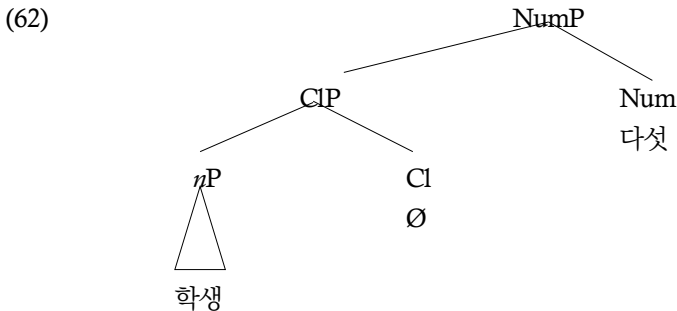
- (60) 가. 방법/방법들
- 나. 조건/조건들
- 다. 증거/증거들
- 라. 유형/유형들

이는 이들이 비록 추상적 개념을 가리키기는 하나, 각 명사가 가리키는 개념의 확실한 구분이 중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유하자면, 임의의 사과 1과 사과 2가 존재론적으로는 구분이 되나, 둘 간의 확실한 구분이 일상적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인식되는데 반해, 학생1과 학생2의 구분 그리고 방법1과 방법2의 구분은 일상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점이 ‘-들’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들’과 같이 나타나는 추상 명사들은 수분류사도 허용하고 있다.

- (61) 가. 상대방이 추가 조건들 두 가지를 제시했다.
- 나. 증거들/유형들/방법들 세 가지

필자는 (3)의 대비도 같은 요인의 결과로 본다. 즉 수분류사의 첨가와 무관하게 일상적 차원에서 각 개체들 간의 확실한 구분이 필요하지 않은 명사들에는 굳이 ‘-들’의 출현이 선호되지 않으나, 각 개체들 간의 확실한 구분이 필요한 명사의 경우에는 ‘-들’의 출현이 배제되지 않기 때문으로 본다.

이 외에도 (2나)의 제안에 문제가 되는 사례로 무분류사 수사 구성의 예를 들 수 있다. 한국어에는 분류사의 출현이 수의적인 명사들이 있다. 그런 명사들이 수사만을 갖는 사례에 대해 S.-Y. Park(2022, (19))은 Simpson & Ngo(2018)의 제안을 따라 다음과 같이 영 분류사를 설정하고 있다.



해서 이 제안에 의하면 무-분류사 수사 구성의 명사가 영형 분류사와 같이 하므로 ‘-들’과 같이 나타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실제 말뭉치에는 이런 사례들이 아주 많이 있다(B. Kang, 2007). 그리고 이런 사례들 중에는 (63가)에서처럼 수사가 명사 뒤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63나)에서처럼 앞에 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무-분류사 수사 구성은 그 자체로 (2나)의 제안에 큰 문제가 된다고 본다. ‘-들’과 분류사가 공존할 수 없다고 보는 S.-Y. Park(2022)의 이론에서 이런 사례들이 설명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들이 동격 구조로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수사와 명사 간의 어순이 아래와 같이 자유로운 예들이 모두 동격 구조 해석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동격 구조 제안하에서 두 어순 간의 관계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지도 문제로 남는다고 하겠다.

- (63) 가. 여자들 넷, 아들들 셋, 딸들 둘, 변호인들 둘, 애들 둘, 친구들 여럿,
사내들 여럿,
나. 두 강대국들, 두 계집아이들, 두 교사들, 두 귀들, 두 나라업자들,
두 낚시꾼들, 두 남동생들, 두 년놈들, ... =B. Kang(2007, (41))

(2나)의 제안은 복수 표지가 없는 중국어에서 대부분의 명사가 분류사를 필수로 요구한다는 점에 대한 Chierchia(1998)의 제안 그리고 복수 표지와 분류사가 “개별화(individuation)”라는 동일 기능을 공유한다는 Borer(2005) 등의 제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S.-Y. Park(2022)은 (2나)의 제안을 통해, Borer의 그런 제안이 한국어 분류사와 ‘-들’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즉 분류사의 기능에 대해서는 분류사가 단수 개체와 복수 개체로 이루어진 비가산 명사의 외연을 단수 개체의 집합으로 바꾼다는 Chierchia의 입장을 따르고 있고 ‘-들’에 대해서는 ‘-들의 기능을 배분성 포착을 위한 개별화로 본 H.-P. Im(2000); Y. Jun(2007) 등의 제안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 입장들이 분류사 및 ‘-들의 기능에 대한 유일한 입장이 아닐뿐더러, 논란의 여지도 있다고 본다.

우선 분류사에 대한 Chierchia의 입장은 해당 언어의 모든 명사를 비가산 명사로 본다는 점을 가정하는데, 한국어의 경우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어에는 각주 37에서 봤듯이 복수 표지 ‘-들’의 허용 여부를 토대로 한 가산/비가산의 구분이 어느 정도 명확한 것으로 보이며,³⁹⁾ 분류사에 대한 Chierchia의 제안에 따르면 가산 명사의 경우 분류사가 허용이 안 되어야 하나, 앞에서 봤듯이 한국어의 가산 명사는 분류사의 출현을 수의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한국어 분류사의 성격이 단순히 개별화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한국어 분류사의 기본 기능은 [측정성]에 있다고 본다(Bale & Coon, 2014; Bale et al., 2019). 한국어 분류사의 특성에 대한

39) 또한 2.1.2의 제안이 맞다면 ‘-회’, ‘-네’, ‘-들’과 결합하는 명사의 성격을 비가산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논의는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측정성] 개념이 무엇이고 이 개념하에 한국어 분류사의 수의적 출현 양상이 어떻게 포착이 되는가만을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⁴⁰⁾

Little et al. (2022)에서 지적되었듯이 수사는 두 개의 의미적 논항을 필요로 한다. 하나는 수 정보가 계산되는 대상이고 다른 하나는 수의 판단이 기준이 되는 측정 기준 혹은 단위이다. 전자는 통상 명사가 담당을 하고 후자는 분류사가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커피 세 잔’의 경우, ‘커피’는 ‘세’라는 수사가 계산되는 대상이고 ‘잔’은 ‘세’라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측정 단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책 두 권’과 같은 가산 명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권’이 수사의 값을 결정하는 측정 단위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럼 한국어에서 분류사가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나? 필자는 [측정성]의 기능을 분류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명사도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본다. 특히 가산 명사의 경우는 수적 정보가 계산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개별성을 가짐으로 인해 [측정성]의 기능도 담당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본다. 이에 의하면 ‘학생 셋’과 ‘학생 세 명’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 셋’의 경우는 ‘학생’이 ‘셋’이라는 수적 정보의 대상인 동시에 측정 단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에 반해, ‘학생 세 명’의 ‘학생’은 대상으로서의 역할만을 하며 해서 ‘명’이 별도의 측정성을 담당하게 된다.⁴¹⁾

한편 ‘-들’의 기능에 대해서도 개별화를 ‘-들’의 고유 기능으로 보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들이 있다(B. Kang, 2007, 2008; C.-W. Park, 2010 등). 즉 ‘-들’의 개별화가 ‘-들’만의 고유 기능이라면 개별화를 통한 배분 해석이 ‘-들’ 표현에만 가능해야 하나, 영형 명사의 경우에도 배분 해석이 가능하다는 관찰이다.⁴²⁾

결국 분류사가 한국어에서 가산 명사와 수의적으로 같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류사의 기능을 단순히 개별화로 보는 입장에서는 설명이 어려우며, 배분성 설명을 위한 개별화의 기능이 ‘-들’뿐 아니라, 영형 복수 혹은 영형 명사에서도 가능하다는 연구들에 의하면 적어도 한국어에서 분류사와 ‘-들’이 개별화라는 고유 기능을 공유하는 독립된 핵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⁴³⁾

40) 최근 Little et al. (2022)이 자연 언어의 분류사에 수사용 분류사(classifier for numerals)와 명사용 분류사(classifier for nouns)의 두 유형이 있음을 제안한 바 있다. 한국어 분류사가 [측정성]을 가진다는 본고의 제안은 한국어 분류사가 명사용 분류사보다는 수사용 분류사에 더 가까움을 말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어 분류사가 Little et al. (2022)에서 제시된 수사용 분류사의 기준에 완전히 맞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기준에 의하면 수사용 분류사의 경우, 수사가 분류사를 의미적 논항으로 취하며 해서 분류사 없는 수사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앞에서 봤듯이 무-분류사 수사가 허용이 된다.

41) 이에 의하면 ‘학생 셋’은 분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의미적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42) 이를 보이는 예들로 다음을 들 수 있다.

(i) 가. 우리반 학생들이/?학생이 (돌아가면서) 각자 선생님께 질문을 했다.

나. 엄마가 자기 아이들에게/?아이에게 풍선을 하나씩 주었다. B. Kang(2007, (10, 11))

43) M.-Y. Park(2022)도 ‘-들’과 분류사의 기능을 개별화로 보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2.3. 중간 요약

지금까지 한국어의 복수 표현 및 수-분류사 구성에 대한 S.-Y. Park(2022)의 핵심 제안 두 가지를 정리하고 그 두 가지가 모두 문제가 있음을 보았다.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시된 제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한국어의 복수 표현들이 독립된 핵이 아니며 그 앞 명사와 함께 X-부가 구조를 이룬다(앞의 (17) 참고). 둘째, ‘들’과 분류사는 동일 핵을 공유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제안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X-부가 구조를 이루는 성분들의 의미적 성격에 대한 제안이다. 명사 혹은 명사구의 의미적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제안들이 있어 왔는데(이에 대한 정리는 Little et al., 2022을 참고할 것), 한편으로는 명사구의 의미적 특성에 크게 속성(attributive) 용법/해석 및 지시(referential) 용법/해석이 있다는 입장이 있다. 필자는 명사구의 이 두 해석적 양상이 구조적으로는 각각 NP 및 DP에 대응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르면 NP의 기본 의미는 속성을 나타내며 형식의미적으로는 $\langle e, t \rangle$ 즉 단수 개체의 집합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NP의 이 의미는 기본적으로는 NP의 핵인 N에 의해 결정된다. 본고의 제안은 한국어 복수 표지들이 통사적으로는 N과 함께 N-부가 구조를 이루며 의미적으로는 복수 표지와 결합하는 대상인 N의 외연을 확장 혹은 변경시키는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복수 표지와 결합된 명사가 e 유형이 아니라, $\langle e, t \rangle$ 유형으로 여전히 속성 해석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런 제안은 한국어 명사 자체의 해석적 양상 그리고 수-분류사의 여러 유형의 해석적 양상에 대해 흥미로운 암시를 제시하는데, 다음 절에서는 이 제안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이 제안이 한국어 수-분류사의 여러 유형에 대해 제공하는 암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3. 한국어의 수-분류사

2절에서 S.-Y. Park(2022)의 주장을 두 가지로 정리, 검토하면서 한국어 복수 표지의 기본 기능은 복수 표지와 같이 나타나는 명사의 N 외연의 확장 또는 변경이며 복수 표지 ‘들’과 수-분류사의 동반 출현이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봤다. 이는 물론 둘의 기능이 서로 다르다고 봤기 때문이다. 즉 ‘들’의 기본 기능은 단수 개체로부터 합이라는 절차를 통해 복수 개체의 집합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반해, 한국어 분류사의 기본 기능은 [측정성]에 있으므로 두 표현의 동반 출현을 배제하는 문법 원리는 없다고 본다. 그럼 명사와 수-분류사가 같이 할 경우 수-분류사의 의미적 역할은 무엇으로 봐야 하나?

흥미로운 점은 한국어에는 수-분류사가 명사와 결합되는 양식에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여러 연구들이 지적한 대로 수-분류사가 속격 조사를 가진 채로 명사 앞에 오는 경우도 있고 명사 뒤에 오는 경우에는 속격 조사를 갖지 못하면서 명사와 분류사가 격 조사를 취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모두 네 양상으로 나타난다. 해서 명사와

그리고 이런 구조하에서 수사 혹은 수분류사가 갖는 의미 기능은 앞에서 본 복수 표지들과 같다고 본다. 즉 명사 N의 외연의 변경이다. 다만 복수 표지들의 경우는 그 변경이 N 외연의 확장(‘-회’, ‘-네’) 혹은 질적 변경이었다면(‘-들’), 수사/수-분류사의 기능은 개별 수사의 값에 맞는 외연의 확정이라고 본다. 즉 명사가 한-원소 집합이 아닌 경우 명사의 외연을 이루는 단수 개체의 수는 임의의 수인데, 수사와 함께 하면서 그 수에 맞게 외연이 확정되는 것으로 본다.⁴⁶⁾ 수사/수-분류사의 이런 기능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 (66) 둘 이상의 임의의 수로 이루어진 단수 개체의 집합을
수사/수-분류사의 정보에 맞는 수로 이루어진 단수 개체의 집합으로
바꾼다.⁴⁷⁾

(66)에 따라 구체적 예를 들자면, ‘학생’의 N 외연의 내용이 (67가)라면 ‘학생 셋/학생 세 명/세 학생’의 N 외연의 내용은 (67나)가 될 것이다.

- (67) 가. {학생1, 학생2, 학생3, 학생4, ….}
나. {학생1, 학생2, 학생3}⁴⁸⁾

이제 이 제안을 토대로 수분류사와 결합하는 다른 유형의 명사를 S.-Y. Park(2022)의 논의대로 따라 해보자. 먼저 고유 명사. S.-Y. Park(2022)은 ‘-네’ 복수 표지와 ‘-들’ 복수 표지 간에 수분류사와의 결합 양상이 차이가 있다면서 다음 예를 들었다. 그리고 이 대비를 ‘-들’이 수분류사와 동반 출현이 안 됨을 보이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 (68) 가. 영미네 세 명
나. *영미들 세 명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68나)가 아주 나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들’이 없는 경우도 적절한 관계절이 주어지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46) 한-원소 집합의 성격을 갖는 ‘나/저’, ‘너’는 수사가 ‘하나/한’인 경우 결합이 가능하나, ‘들/두’ 이상인 경우는 안 된다. 이는 물론 ‘나/저’, ‘너’가 한-원소 집합이기 때문이다.

(i) 가. 나 하나, 저 하나, 너 하나 나. 나 한 명, 저 한 명, 너 한 명
(ii) 가. *나 둘, *저 둘, *너 둘 나. *나 두 명, *저 두 명, *너 두 명

47) 이는 수사/수-분류사와 같이 하는 명사가 영형 명사 내지 ‘-회’, ‘-네’의 경우에 국한한다. ‘-들’ 형의 경우는 ‘-들’이 복수 개체의 집합의 성격을 가지므로 (66)의 내용도 그에 맞게 복수 개체로 교체되어야 한다.

48) 물론 이렇게 구성원의 수가 확정되어도 어떤 개체로 확정되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여전히 NP의 외연은 비한정성을 띤다. 이는 ‘학생들 세 명’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 (69) 가. 나는 각기 성이 다른 영미들 세 명을 찾고 있다/만났다.
 나. 나는 각기 성이 다른 영미 세 명을 찾고 있다/만났다.

혹자는 일반적으로 고유 명사가 단일 개체를 가리킨다는 점을 들어 (69나)의 수용성이 필자 이론에 문제임을 지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NP 외연의 성격을 단수 개체의 집합으로 보고 DP가 갖는 해석을 실제 맥락상에서 결정되는 지시 해석으로 보는 본고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선 이런 관점에 의하면 모든 명사구의 N 외연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70) 가. 한-원소 집합; ‘나/저’, ‘너’
 나. 비 한-원소 집합; 둘 이상의 임의의 수로 이루어진 단수 개체의 집합
 --고유 명사; ‘철수’, ‘영미’, ...
 --가산 명사; ‘사과’, ‘사람’, ‘학생’, ‘강아지’, ‘너구리’, ‘조건’, ‘증거’ ...
 --비가산 명사; ‘물’, ‘우유’, ...⁴⁹⁾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앞서서도 지적하였듯이 고유 명사도 N 외연은 기본적으로 한-원소 집합의 성격이 아니라는 점이다. 해서 (70나)에서 ‘영미’의 외연이 {영미1, 영미2, 영미3, ...}이라면 ‘영미 세 명’의 외연은 이 중에서 구성원이 셋으로 줄어든 단수 개체의 집합, 예를 들어, {영미1, 영미2, 영미3}이 되는 것이다.⁵⁰⁾ 물론 고유 명사가 수분류사와 함께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일 개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는 DP로서 고유명사가 갖는 담화상 특성에 의한 것으로 본다. 즉 필자는 N이 비 한-원소 집합의 성격을 갖는 모든 명사의 경우(고유 명사도 포함하여) 그런 외연을 바탕으로 DP가 갖는 지시 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71) 가. 종류(kind) 지시 해석: NP의 외연을 이루는 단수 개체 전체 혹은 최대치(totality)를 하나로 가리키는 해석⁵¹⁾

49) 비가산 명사에 대한 일반적 규정은 단수 개체와 복수 개체의 집합으로 보는 것이나, 본고에서는 잠정적으로 비가산 명사도 단수 개체만의 집합으로 본다. 물론 가산 명사 및 비가산 명사를 이루는 단수 개체의 성격은 다르다. 직관적으로 가산 명사를 이루는 단수 개체는 minimal part의 확인이 가능하나, 비가산 명사를 이루는 단수 개체는 그렇지 못하다. 다만 분류사와 함께 할 경우에만 minimal part의 확인이 가능하다. 비가산 명사에 대한 이런 입장의 본격적 검토는 앞으로의 연구로 미룬다.

50) ‘들’의 의미를 단순히 단수 개체의 합인 복수 개체의 집합으로 보는 본고의 입장에 의하면 ‘영미들’ 또는 ‘영미들 세 명’의 외연은 각각 다음과 같다.

- (i) 가. [영미들] = {{영미1, 영미2}, {영미1, 영미3}, {영미2, 영미3}, ... {영미1, 영미2, 영미3}, ...}
 나. [영미들 세 명] = {{영미1, 영미2, 영미3}, {영미2, 영미3, 영미4}, ...}

두 표현 간의 차이는 (67가)와 (67나)의 차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 즉 ‘영미들’은 구성원의 수가 둘 이상인 복수 개체의 집합인데 반해, ‘영미들 세 명’은 그 중 구성원이 셋으로 되어 있는 복수 개체의 집합이다.

- 나. 단일 지시 해석: NP의 외연을 이루는 임의의 수의 단수 개체 중 하나만 가리키는 해석
- 다. 집단(group) 지시 해석: NP의 외연을 이루는 임의의 수의 단수 개체 중 둘 이상, 전체/최대치 미만을 가리키는 해석⁵²⁾

필자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명사는 지시 해석으로 위 세 가지 가능성을 가지며, 실제로 어떤 해석을 갖게 되는가는 담화상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⁵³⁾ 고유 명사가 다른 보통 명사에 비추어 갖는 특징은 위 세 가지 가능성 중 단일 지시 해석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집단 지시 해석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닌데, (69나)의 예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 다음과 같은 대명사의 경우를 보자.

- (72) 가. 너희 세 명
- 나. 그들 세 명

이 두 예에 대한 S.-Y. Park(2022)의 분석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같지 않다. (72가)는 (11)과 같은 수분류사 구조를 가지지만, (72나)는 (2나)에 의해 그러지 못하고 대신 동격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고는 동격 구조의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아니라, (2나)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72나) 역시 수-분류사 구조를 갖는 것으로 본다. 문제는 ‘그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그들’에 대한 전통적 입장은 3인칭 대명사 ‘그’의 복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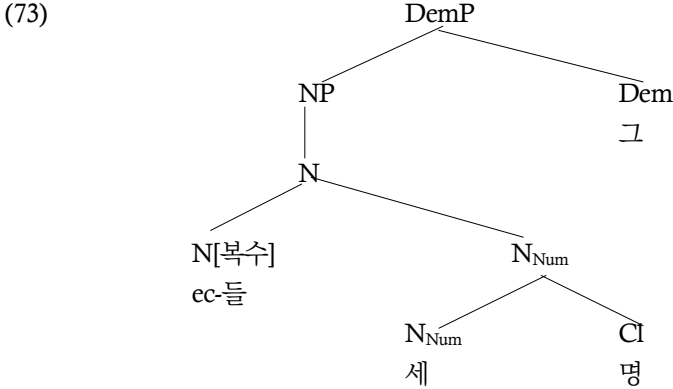
51) 이는 “종류” 개념을 totality로 파악한 Chierchia(1998, p. 11)의 직관을 이용한 것이다.

It seems natural to identify a kind in any given world (or situation) with the totality of its instances. Thus, the dog-kind in our world can be identified with the totality of dogs, ...

Chierchia와 다른 점은 Chierchia는 언어에 따라 이런 종류 지시 해석을 NP가 가질 수 있다고 한 반면, NP와 DP의 해석적 특성을 구분하는 본고의 입장에서는 DP만이 종류 지시 해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비 한-원소 집합 성격의 NP 외연은 그 구성원이 둘 이상의 임의의 수로 되어 있음을 나타낼 뿐이며 전체를 가리키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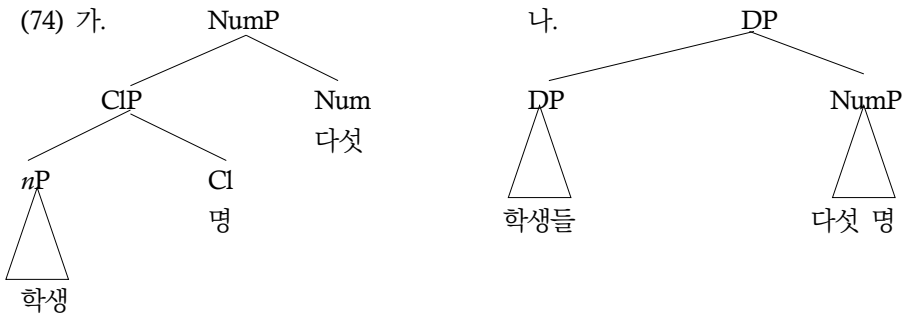
- 52) “둘 이상, 전체/최대치 미만”은 집단 지시 해석이 가리키는 지시체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이 임의의 수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 범위에서 어떤 수로 고정되는가는 수사/수-분류사 또는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한편 본고의 입장에 의하면 한국어 영형 명사가 갖는 단수 및 복수 해석은 각각 DP의 단일 지시 해석 및 집단 지시 해석에 대응된다.
 - 53) 한 사례로 다음 예를 들 수 있다. 아래 예의 ‘사과’에 대한 자연스러운 해석은 (i가)의 경우는 종류 지시, (i나)는 단일 지시, (i다)는 집단 지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i나)의 경우 철수가 집은 사과가 실제로 둘이라면 집단 지시 해석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i다)에서는 단일 지시 해석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i) 가. 철수가 사과를 좋아한다.
 - 나. 철수가 사과를 집었다.
 - 다. 철수가 사과를 사 왔다.

형으로 보는 것이나, 필자는 ‘그’ 자체를 대명사로 보지 않고 [지시사+ec]의 구조로 파악하므로, 이에 맞추어 (55나)의 구조는 일단 다음으로 보기로 한다.⁵⁴⁾



이 제안에 의하면 ‘ec-들 세 명’의 NP 외연은 “사람”이라는 단수 개체의 합, 즉 복수 개체로 이루어진 집합 중 구성원이 셋인 복수 개체이며 지시사 ‘그’는 복수 개체 중 하나를 가리키는 해석을 갖는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통 명사의 경우를 보자. 2절에서 봤듯이 S.-Y. Park(2022)은 보통 명사의 경우 [유정성]을 지닌 명사에서만 ‘-들’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런 예들도 (11)과 같은 수분류사 구조로서가 아니라, 동격 구조로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동격 구조로서 가능하려면 수분류사 앞의 명사가 한정적이어야 하는데, 실제로 S.-Y. Park(2022)은 ‘학생들 세 명’의 ‘학생들’이 한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여러 논증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런 주장에 의하면 ‘학생들 세 명’은 (74나)와 같은 동격 구조로서만 가능하지만, ‘학생 세 명’은 (74가)와 같은 수분류사 구조로 파악된다(아래 (51)의 구조를 (74)로 다시 제시한다).



54) 필자는 궁극적으로는 (73)의 구조 대신 ‘-들’이 지시사에 위치하는 것으로 본다. 더 나아가 ‘그들’을 3인칭 복수 대명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K. Choi(2025b)를 참고할 것.

이제 다른 유형의 논의로 넘어가기 전에 2.1.4에서 3절로 검토를 넘긴 다음 예들을 보기로 하자.

- (48) 나는 어제 학생 세 명을 만났다.
- (49) 가. *나는 학생을 칭찬했다.
나. *나는 그 학생을 칭찬했다.
다. *나는 학생들을 칭찬했다.
라. 나는 그 학생들을 칭찬했다.

이 예를 통해 박소영이 보이고자 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하나는 ‘-들이 한정성을 보장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48)에서 언급된 ‘학생 세 명’을 다시 가리킴에 있어 (49)의 양상이 ‘-들이 필요함을 보이므로 이는 한국어의 복수 표지 ‘-들이 항상 수의적이 아님을 보이며 해서 ‘-들을 수식어로 보는 분석이 틀렸다는 것이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반론은 2.1.4에서 이미 언급했으므로 여기서는 첫 번째 주장을 검토한다.

우선 이 주장은 (49나)와 (49라)의 대비를 중시한 것이다. 즉 (48)의 ‘학생 세 명’을 가리킴에 있어 (49나)와 (49라)의 대비는 지시사만으로는 안 되고 ‘-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해서 ‘-들이 한정성을 보장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물론 (49나)의 ‘그 학생’이 단수 해석만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상 지시사 ‘그’가 한정 해석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는 성급한 결론으로 보인다. 실제로 (48)에서 언급된 복수의 학생을 가리키는 데 있어 ‘-들의 출현이 필수적이지는 않다. 지시사와 수분류사만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들이 명사가 아니라 지시사에 오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아래 #는 휴지의 위치를 말한다).

- (77) 가. 나는 어제 만난 그 # [학생 세 명]을 칭찬했다.⁵⁷⁾
나. 나는 그들 학생을 칭찬했다.

그럼 ‘-들의 한정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런 양상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나? 필자는

57) Park & Park(2020); M-K. Park(2022)의 관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지시사가 ‘학생’과 함께 할 경우에는 휴지의 위치도 달라지고 문장도 나빠진다.

- (i) *나는 어제 만난 [그 학생] # 세 명을 칭찬했다.

즉 지시사가 어떤 명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48)에서 언급된 ‘학생 세 명’을 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한편 Park & Park(2020)은 명사가 이른바 무정 명사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수용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 (ii) [이 책] # 두 권이 =Park & Park(2020, (7a))

필자도 이 관찰에 동의하며 이런 양상 및 (48, 49)에 대한 설명이 본문에서 시도된다.

한정성의 기원이 ‘-들’보다는 지시사에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반하에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즉 지시사를 갖는 세 예문 중 (49나)만이 앞선 언급된 ‘학생 세 명’을 가리키지 못하는데, 이는 물론 (49나)의 ‘그 학생’은 단일 지시 해석을 가지고 (49라)의 ‘그 학생들’, (77가)의 ‘그 [학생 세 명]’은 복수 해석을 가지기 때문이다. 우선 (49라)와 (77가)의 복수 해석은 지금까지의 분석에 의해 포착이 된다. 즉 ‘-들’과 결합하는 명사 N의 외연은 단수 개체의 합, 즉 복수 개체이므로 복수성이 보장된다. 그리고 둘 이상의 수사와 함께 하는 분류사-격형 또한 수사가 이미 복수성을 의미하므로 복수 해석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지시사는 그런 NP 외연을 가리키면서 전체적으로는 한정성을 갖게 된다.

그럼 (49나)의 ‘그 학생’은 왜 단일 개체만을 가리키게 되나? 혹은 질문을 달리 하여 본고의 입장에서 ‘학생’의 N 외연은 임의의 수의 단수 개체의 집합을 가리키므로 지시사가 그 중 둘 이상을 가리킬 수 있다면 복수 해석을 가질 수 있는데, 왜 지시사와 함께 하면 단일 지시 해석만을 가지게 되나? 이는 지시사가 영형이기 때문으로 본다. (77나)에서 보듯이 ‘-들’이 명사가 아니라, 지시사에도 나타날 수 있는데, 아래 예들은 영형 지시사(즉 ‘-들’이 없는 지시사)와 ‘-들’ 지시사(즉 ‘-들’을 가진 지시사) 간에는 해석적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영형 지시사의 경우는 명사의 NP 외연 중 단일 구성원만을 가리키는 데 반해, ‘-들’ 지시사는 둘 이상의 구성원을 가리킨다.

- (78) 가. 영미가 이/그/저 학생을 추천했다.
- 나. 영미가 이들/그들/저들 학생을 추천했다.
- (79) 가. 나는 이/그/저 증거를 믿을 수 없다.
- 나. 나는 이들/그들/저들 증거를 믿을 수 없다.

지시사의 이런 기여를 통해 전체 DP는 지시 해석을 가지게 되는데, 지시사와 같이 하는 명사의 NP 외연이 직관적 의미에서의 복수성을 가지더라도(그 외연이 임의의 수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체 DP의 단수, 복수 여부가 지시사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시사가 ‘-들’을 갖느냐에 따른 지시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 (80) 가. 영형 지시사는 비 한-원소 집합 성격의 영형 명사와 함께 할 경우 단일 구성원을 가리킨다.
- 나. ‘-들’ 지시사는 비 한-원소 집합 성격의 영형 명사와 함께 할 경우 둘 이상의 구성원을 가리킨다.

이제 (49나)와 (77나) 간의 대비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우선 주목할 점은 두 문장의 ‘학생’이 모두 영형이고 그 NP 외연도 임의의 수의 학생으로 같다는 점이다. 그러나 (80)

에 의해 지시사가 가리키는 구성원의 수가 달라진다. 즉 (49나)의 경우는 한 학생만을 가리키게 되지만, (77나)에서는 둘 이상의 학생을 가리키게 되며 해서 (48)의 ‘학생 세 명’을 받는데 있어 (49나)는 배제되고 (77나)는 문제가 없게 된다. 그럼 (49라)는 왜 문제가 없는가? 앞서 지적했듯이 ‘학생들’은 ‘들’의 의미로 인해 개별 구성원이 복수 개체이며 (80가)에 의해 영형 지시사인 ‘그’가 그 중 단일 구성원을 가리키더라도 그 구성원이 이미 복수 개체이므로 (48)의 ‘학생 세 명’을 받는 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어 명사가 수분류사와 함께 하는 경우를 보자.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제시된 예들은 이 경우 고려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보여준다. 우선 지시사와 관련해서는 명사가 수분류사와 함께 할 경우 지시사의 대상으로 명사도 가능하지만, [명사+수분류사]도 가능함을 보여주는데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주 57에서 지적했듯이 그런 차이가 (48)의 ‘학생 세 명’을 받는 데 있어 차이를 유발하였는데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분류사와 같이 나타나는 명사의 유무정성 여부와 관련된 대비를 어떻게 볼 것인가도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두 번째 논제와 관련해서는 (65)의 구조적 제안 및 이 구조의 의미적 성격에 대한 본고의 제안이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 (65)에 의하면 N에 수분류사가 부가되면서 서로 다른 N이 생성된다. 이를 (65)에 표기되어 있듯이 N1, N2로 구분해 보자. 본고의 의미적 제안에 의하면 (65)에서 N1과 N2의 외연은 성격이 다르다. 즉 N1은 임의의 수의 단수 개체의 집합이지만, N2의 외연은 N1과 함께 하는 수분류사의 수적 정보에 맞게 확정된다. 앞에서 언급한 지시사의 중의적 성격은 바로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⁵⁸⁾ 즉 N-부가 구조 내 N들의 외연적 성격이 다르므로 지시사가 관여하는 N의 성격에 따라 그 지시적 성격도 달라지고 그에 따라 휴지의 위치도 달라지는 것으로 본다.

먼저 지시사가 N1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보자. 이 경우는 지시사가 명사하고만 관계를 가지며 해서 휴지는 명사 뒤에 온다. 즉 각주 57의 (i)의 사례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 경우 지시사는 임의의 수의 단수 개체의 성격을 갖는 N1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80가)에 의해 단일 구성원을 가리키게 되고 그로 인해 그 뒤에 오는 수분류사의 정보와 맞지 않아 배제된다. 한편 지시사가 N2를 대상으로 하는 (77가)는 양상이 다르다. N2의 외연은 수분류사의 수 정보에 맞게 구성원의 수가 확정되며 이를 통해 지시사와의 관계 설정의 성격이 다음과 같이 달라지는 것으로 본다.

- (81) [명사+수분류사]와 관계를 맺는 영형 지시사는 수사의 값을 충족하는 단수 개체의 집합 전체를 가리킨다.

(81)의 취지는 [명사+수분류사]의 외연은 그 구성원의 수가 수분류사에 의해 고정되

58) 이 중의성에 대한 Park & Park(2020)의 제안은 이와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Park & Park(2020)을 참고할 것.

며 그로 인해 지시사의 관점에서는 단일 구성원으로 인식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N2 외연 자체는 복수 개체의 성격을 가지므로 (48)의 ‘학생 세 명’을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분류사와 같이 하는 명사가 ‘책’, ‘가방’과 같은 경우를 보자.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Park & Park(2020)은 아래의 두 해석이 다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 (82) 가. 이/그/저 # [책 두 권]
- 나. [이/그/저 책] # 두 권

이 중 (82가)는 문제가 안 된다. 지시사가 ‘책 두 권’이라는 집합 전체를 가리키는 해석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문제는 (82나)에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에 의하면 지시사가 ‘책’하고만 관련을 맺는 경우 ‘책’의 외연 중 단일 구성원을 가리키게 되며 그로 인해 수분류사의 수 정보와 맞지 않아 나쁠 것으로 예상되나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아니라고 본다. M.-K. Park(2022, p. 734)에서 지적되었듯이 (82나)에서 가리키는 ‘책’은 서로 다른 책이 아니라, 동일한 책의 서로 다른 복사를 의미한다. 같은 차원의 지적이 Y.-T. Hong(2019)에서도 이루어진 바 있다.

- (83) 철수가 <<토지>>를 너무 좋아해서 서점에서 그 책 세 권을 사서 친구들에게 선물했어. =Y.-T. Hong(2019, (15a))

중요한 점은 이런 복사 개체의 개념이 ‘학생’과 같은 [인간] 명사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명사의 기본 N 외연에 이런 복사 개체가 허용되는 ‘책’, ‘가방’의 경우는 영형 지시사가 그 복사 개체 중 단일 복사 개체를 가리키더라도 그 복사 개체가 여러 개체를 가리킬 수 있어 뒤에 오는 수분류사의 수 정보와 문제를 안 일으키지만, ‘학생’과 같은 [인간] 명사의 N 외연에는 복사 개체가 허용이 되지 않으므로 영형 지시사와 함께 할 경우 단일 개체만을 가리키게 되고 그로 인해 뒤에 오는 수분류사의 수 정보와 맞지 않는 것으로 본다.⁵⁹⁾

지금까지 한국어 복수 표지들에 대한 2절의 제안이 분류사-격형의 수분류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보았다. 핵심은 분류사-격형의 수분류사도 복수 표지들과 마찬가지로 N-부가 구조를 형성하며 의미적으로는 N 외연의 수적 확정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런 확장은 물론 분류사-격형의 구조에 대한 필자의 제안(K. Choi, 2001, 2025a)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그런 확장의 단순 가능성을 넘어 본고는 그런 확장을 통해 Park & Park(2020); M.-K. Park(2022) 등에서 미해결로 남겨진 현상들이(명사와

59) 이 분석은 직관적 수준에 머무른다. N의 외연에 이런 복사 개체의 개념이 형식적으로 어떻게 포착이 될지는 앞으로의 과제로 돌린다.

수분류사가 함께 할 경우 제기되는 앞의 세 가지 과제 참고)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또한 (48, 49)의 패러다임이 ‘-들’의 한정적 성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영형 지시사와 ‘-들’ 지시사의 해석적 차이 그리고 분류사-격형에서의 수-분류사의 의미적 기능(즉 수적 확정)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었다. 한편 이 제안에 의하면 다른 유형의 수분류사가 명사 표현과 갖는 구조적 관계가 N-부가 구조가 아니라면 N 외연의 수적 확정이라는 특성을 갖지 못함을 말하는데, 이런 예측이 들어 맞음을 다음 절에서 보기로 한다. 3.2에서 속격형의 경우를 보고 3.3에서 명사-격형/이중격형의 경우를 살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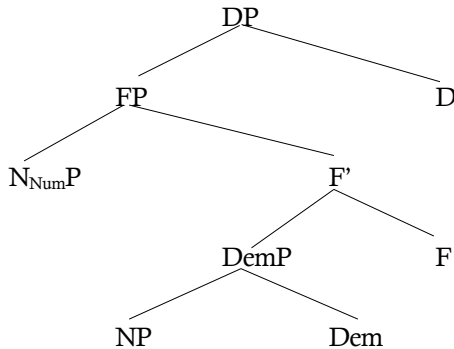
3.2. 속격형의 경우: NP 외연의 제한

필자는 K. Choi(2025a)에서 속격형 수-분류사와 명사 표현 간의 관계가 수식-피수식에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비속격형과 다름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차이를 입증할 여러 증거들을 제시한 바 있는데, S.-Y. Park(2022)에서도 속격형과 분류사-격형이 다름을 보이는 추가 증거의 제시와 함께 속격형 수-분류사에 대해 (11)과는 다른 구조적 제안을 하고 있다. 이 구조에 대한 자세한 논증은 없으나, (11)의 구조를 전제로 수분류사가 이 중 nP에 부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quantificational readings cannot be adjoined directly to the definite DPs but should be adjoined to somewhere between DPs and nPs, which, for the expository purpose, will be represented as adjoining to nPs (in a sense opposite to DPs) in what follows

이 제안은 결국 속격형의 수-분류사를 수식어로 파악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비록 구체적 구조는 다르나, 필자의 아래 제안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K. Choi2023 참고). 필자는 한국어의 속격 표현의 위치를 DemP와 DP 사이의 임의의 핵의 지정어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 위치는 물론 NP에 대한 수식 성분을 위한 위치로 설정한 것이다.

(84)



그럼 분류사-격형과 속격형의 수-분류사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먼저 이 차이를 보이는 S.-Y. Park(2022)의 자료를 필자의 판단에 맞게 수정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⁶⁰⁾

- (85) 가. *세 명의 너희/너희 세 명
나. *세 명의 그들/그들 세 명
다. *세 명의 철수네/철수네 세 명
라. 세 명의 철수들/?철수들 세 명
- (86) 가. 세 명의 학생들/학생들 세 명
나. 세 개의 사과들/??사과들 세 개

이 자료에서 S.-Y. Park(2022)이 우선 주목하는 것은 (85라)와 (86나)가 보이는 속격형과 분류사-격형의 대비이다. 이 대비에 주목하는 이유는 ‘철수들 세 명’, ‘사과들 세 개’가 안 좋음의 원인이 (2나)에 있다고 볼 때, 속격형이 좋은 이유를 속격형에서 수-분류사가 ‘들’과 같은 위치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앞에서 봤듯이 속격 성분의 구조적 위치를 *nP* 부가로 본다면 수-분류사는 ‘들’과는 전혀 다른 위치에 오게 되므로 동반 출현이 허용된다는 분석이다. 그럼 (85가-다)의 속격형은 왜 안 좋은가? 이에 대한 설명은 다소 모호하나 DP인 ‘너희’, ‘그들’, ‘철수네’에는 속격 표현이 부가될 수 없기 때문으로 본다. 그에 반해, (85라)가 좋은 것은 ‘철수’가 *nP*인 상태에서 이 *nP*에 속격 표현이 부가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본다.

In other words, prenominal numeral classifiers that lead to regular quantificational readings cannot be ajointed directly to the definite DPs ...

그러나 (85라)의 *nP* ‘철수’에 대한 속격 표현의 부가 허용이 왜 (85가-다)의 ‘너’, ‘그’, ‘철수’에 대해서는 허용이 안 되는지는 불분명하다. 구체적으로 이들 표현 모두 DP이고 그 내부에는 *nP*가 설정될 터인데 그 *nP*에 속격 표현이 왜 허용이 안 되는지가 불분명하다. 더군다나 ‘철수네’의 ‘철수’와 ‘철수들’의 ‘철수’가 같은 성격의 표현임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본고의 분석은 이와 다른데, 우선 (85-86)의 분류사-격형을 배제하는 문법 원리는 없다고 본다(앞에서 봤듯이 부정성 명사의 경우는 다른 이유로 수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들 표현의 NP 외연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된다. 즉 둘 이상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비 한-원소 집합의 성격을 갖는 N 외연이 수-분류사의 수사에 의해 확정된다.

60) 수정된 부분은 ‘철수들 세 명’, ‘사과들 세 개’이다. 박소영에서 이들 표현은 아주 나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84)의 제안에 의하면 속격형 수-분류사는 구조적으로 NP, 더 나아가 DemP의 외곽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는 물론 속격 수-분류사가 N 외연의 변경에 참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혹은 (85라), (86)에서 보듯이 속격 수-분류사가 가능하다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명사 성분과 관계를 가짐을 보이는데, 필자는 일단 그 방식은 N 외연의 변경은 아니라고 본다. 여기서 그 방식의 구체적 내용을 논하기는 이르다고 본다. 일단 DP 차원의 지시 해석과 관련하여 DP의 지시 범위가 속격 수-분류사에 의해 제한되는 관계라고 본다. 이렇게 볼 때, (85가-다)와 (85라), (86)의 차이는 명사 성분의 한정성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일단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87) NP의 외연 결정시에 한정성을 갖게 되는 혹은 한정성이 예상되는 표현의 경우 그 위에 수량 표현을 허용하지 않는다.⁶¹⁾

(87)이 다소 거칠게 기술되었으나, 그 취지는 ‘너희’, ‘그들’, ‘철수네’처럼 NP 외연의 내용만으로 DP가 어떤 대상을 가리킬 것인가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속격 수-분류사의 수식이 허용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식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즉 NP 외연만으로 담화상 어떤 개체를 가리킬 것인가가 확정 가능한 경우에는 수-분류사에 의한 지시 대상의 수적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85다)의 ‘철수네’와 (85라)의 ‘철수들’이 이 점에서 다르다는 점이다. 즉 ‘철수네’의 경우는 ‘네’의 의미적 성격에 의해 ‘철수’뿐 아니라, ‘철수’ 관련 개체가 누구를 가리킬 것인가가 담화상 알려져 있는데 반해, ‘철수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즉 ‘철수들’의 NP 외연은 ‘철수’라는 이름이 같은 임의의 개체의 합의 성격만을 가진다. 즉 담화상에서 어떤 ‘철수’를 가리킬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지금까지 (87)을 통해 왜 속격형에서 수-분류사의 허용 여부가 명사의 의미적 성격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가를 보았다. 중요한 점은 이런 대비 양상이 분류사-격형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분류사-격형에서는 명사의 한정성 여부와 무관하게 수-분류사가 다 허용이 된다.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가? 본고의 입장에 의하면 이는 수-분류사가 갖는 의미적 기능 혹은 그 기능이 적용되는 영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분류사-격형에서는 수-분류사가 N과 N-부가 구조를 형성하면서 단순히 N 외연의 변경에만 관여하며 해서 N이 장차 가지게 될 담화적 성격은 고려되지 않는다. 반면에 속격형에서 수-분류사는 NP-DemP 외곽에 위치하며 해서 DP의 지시적 속성에 수사를 통한 변화를 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87)은 DP의 지시적 속성이 NP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런 가능성이 제한이 됨을 보여준다. 즉 수-분류사의 구조적 위치에 따라 수-분류

61) 이는 수량 표현이 ‘한 명/하나’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아래 예에서 보듯이 분류사-격형보다 속격형이 나쁜 것으로 판단된다.

- | | | |
|--------|----------|---------|
| (i) 가. | ?*한 명의 나 | ?*하나의 나 |
| 나. | 나 한 명 | 나 하나 |

사가 관계를 맺는 명사 성분의 통사적 성격이 달라지며 그 결과 수-분류사의 의미적 역할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그럼 명사-격형/이중격형의 수-분류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 그리고 이 유형의 수-분류사는 어떤 성격의 명사 성분과 관계를 맺는가? 이는 다음 절에서 보기로 한다.

3.3. 명사-격형/이중격형의 경우: 부분 해석

명사-격형/이중격형과 분류사-격형의 관계에 대해서는 표면적 차이가 격조사의 출현 여부 정도이므로 일반적으로 두 유형을 서로 다른 유형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필자는 K. Choi(2025a)에서 이 두 유형 간에 아주 많은 통사적, 해석적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이것의 원인이 명사 성분과 수-분류사 간의 선택 성격의 차이에 있음을 제안했다. 즉 분류사-격형은 수-분류사가 N을 선택한 결과이고 명사-격형/이중격형은 수-분류사가 DP를 선택한 결과로 본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구조가 달라진다고 봤는데, 본고에서는 이 선택이 의미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 두 유형의 기원이 다르다는 K. Choi(2025a)의 주장뿐 아니라, 본고의 명사구 의미론을 지지해 줌을 보일 것이다.

두 유형 간에 명사 성분의 특성이 다름을 보이는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 일단 두 가지를 제시한다.

(88) 가. 내가 성이 다른 영미 셋을 만났다.

나. 내가 성이 다른 영미를 셋을/셋이나/셋만 만났다.

(88가)는 분류사-격형, (88나)는 명사-격형의 사례인데, 두 유형 간에 ‘영미’의 지시적 특성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즉 (88가)에서는 ‘만남’의 대상인 ‘영미’의 수가 셋으로 고정되어 있다. 그에 반해, (88나)에서는 ‘영미’의 수가 고정되지 않는다. 즉 만나는 대상으로서의 ‘영미’의 수는 (88가)와 마찬가지로 셋으로 정해지나, ‘영미’가 가리키는 지시 대상의 수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즉 (88나)의 의미는 “성이 다른 영미가 여럿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셋을 만났다”라는 이른바 부분 해석인 것이다. 이는 위의 예에서 보듯이 ‘셋이나’, ‘셋만’의 경우에 보다 더 분명히 드러난다.

두 번째 사례는 지시사와 같이 할 경우이다.

(89) 가. 철수가 그 # [인부 세 명]을 고용했다.

나. *철수가 [그 인부] # 세 명을 고용했다.

다. *철수가 그 # [인부를 세 명(을)] 고용했다.

라. *철수가 [그 인부를] # 세 명(을) 고용했다.

앞서 보았듯이 ‘지시사+N’ 표현은 그 자체로는 단일 지시 해석을 가지나, 수-분류사

와 함께 할 경우 그리고 휴지가 지시사 뒤에 올 경우 수분류사가 둘 이상이면 복수 해석을 가지게 된다. 즉 (89가)에서 고용된 인부는 모두 세 명인 것이다. 그러나 (89나)에서 보듯이 휴지가 명사 뒤에 올 경우에는 안 좋아지는데, 앞서 설명했듯이 이 대비는 지시사가 N-부가 구조 내 명사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 인부’가 단일 지시 해석을 가지게 되고 이 해석이 ‘세 명’과 어긋나기 때문에 파악된다. 그러나 (89다, 라)는 지시사에 의한 이런 중의적 양상이 명사-격형/이중격형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을 보인다. 우선 (89다)의 비문법성은 명사-격형/이중격형에서는 지시사가 [명사+수-분류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물론 명사-격형/이중격형에서 지시사는 명사만을 대상으로 함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89라)는 명사-격형/이중격형의 명사 성분이 영형 명사인 경우도 지시사의 수식이 허용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결국 명사-격형/이중격형은 분류사-격형의 경우와 다르게 명사가 영형인 경우 지시사의 수식이 어떤 구조하에서도 허용이 되지 않음을 보인다(명사가 (89)와 다르게 무정인 경우는 양상이 다르다. 이는 곧 논의된다).

이상의 대비들은 분류사-격형과 명사-격형/이중격형 간의 구조적 차이(K. Choi, 2025a) 그리고 본고에서 제시한 NP와 DP의 해석적 성격의 차이에 의해 설명이 된다. 먼저 (88)의 사례를 보자. 분류사-격형의 경우인 (88가)에서 ‘영미’와 ‘셋’은 함께 N-부가 구조를 이루며 해서 ‘영미 셋’이라는 NP의 외연은 구성원의 수가 셋인 ‘영미’의 집합의 성격을 가지고 DP도 같은 수의 ‘영미’의 집합을 가리키게 된다. 그에 반해, 명사-격형/이중격형의 경우는 다르다. 필자는 이 유형에서 수-분류사가 명사 부분을 DP로서 취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의하면 ‘영미를 셋을’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90) [NNumP [DP 영미] [NNum 셋]]

주목할 점은 이 구조에서는 수사/수-분류사가 명사를 핵으로 하는 DP 내부 성분이 아니라는 점이다. 해서 ‘영미’의 DP 해석에는 수적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게 된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DP의 지시 해석 중 (88나)의 ‘영미’에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집단 지시 해석이 될 것인데 그 수는 물론 주어진 맥락에 의해 고정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수사가 있지만, ‘영미’라는 DP의 지시체의 수가 (88가)에서와 같이 ‘셋’으로 고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서 전체적으로는 이른바 ‘부분’ 해석의 양상을 띠게 된다.

(89)의 대비도 분류사-격형과 명사-격형/이중격형 간의 이런 구조적 차이에 의해 설명이 된다. 먼저 (89가)를 보자. 분류사-격형에서 명사와 수-분류사는 N-부가 구조를 이루며 수-분류사에 의해 N의 외연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영형 지시사가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외연의 N이 두 개가 있다. (89가)에서는 영형 지시사가 대상으로 하는 N이 [명사+수사-분류사]이고 결국 복수 해석을 갖게 된다. (89나)에서는 대상이 [명사]로만 국한되는데, 이로 인해 [지시사+명사]가 갖는 수적 정보(즉 단일 지시)와 수-분류사의 수적 정보가 서로 안 맞아 배제된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이 명사-격형/이중격형의 경우에는 실현되지 않는데 이는 (90)의 구조하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앞서 지적했듯이 명사-격형/이중격형에서는 수-분류사 앞에 오는 명사 및 지시사들은 수-분류사와 별도로 하나의 DP를 형성한다. 이는 (89나)에서 지시사 ‘그’가 관여하는 대상에는 수-분류사가 포함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89다)와 같은 구조는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남은 가능성은 (89라)인데 지시사 ‘그’의 대상은 ‘인부’이고 ‘그’가 영형 지시사이므로 ‘그 인부’는 단일 지시 해석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는 그 뒤에 오는 수-분류사의 수 정보와 맞지 않게 된다.⁶²⁾

이상의 대비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분류사-격형의 경우는 수-분류사가 앞의 명사와 함께 NP 외연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반면, 명사-격형/이중격형에서는 수-분류사가 앞의 명사 성분의 NP 외연은 물론이요, DP의 지시 대상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명사 성분만으로 DP를 이루며 수-분류사는 DP 바깥의 성분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명사-격형/이중격형은 부분 해석만 갖게 되는 것이다.

4. 결론

한국어의 복수 표현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들’과 영형 간의 의미적 대비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들’ 외의 복수 표현인 ‘-회’, ‘-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 점에서 이들 복수 표현들 간의 의미적 차이 그리고 구조적 성격에 대한 S.-Y. Park(2022)의 연구는 한국어 명사구에 대한 통사적 연구의 새로운 한 장을 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들’과 분류사의 관계에 대한 Chierchia(1998); Borer(2005)의 제안이 한국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및 관련 제안들 또한 한국어 명사구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는 복수 표지 및 분류사와 관련된 여러 자료들의 자세한 검토를 통해, (2)로 정리된 S.-Y. Park(2022)의 핵심 주장이 유지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특히 ‘-들’과 분류사가 공존할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동격 구조 분석이 유지될 수 없음을 지적하는 한편 한국어에서 [측정성]의 기능을 담당하는 분류사와 단수 개체로부터 복수 개체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는 ‘-들’의 공존을 막는 어떤 문법 원리도 없음을 주장한다. 더 나아가 한국어의 세 복수 표지의 의미적, 구조적 성격에 대해서도 S.-Y. Park(2022)

62) M.-K. Park(2022: 733쪽 이후)은 명사-격형/이중격형의 경우에도 명사의 유무정성 여부가 분류사-격형에서와 같은 대비를(각주 56의 (i)과 (ii) 간의 대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i) 가. 그 책을 세 권
나. *그 학생을 세 명 =M.-Y. Park(2022: (13a, 14a))

이 대비에 대해서도 앞서 언급한 복사 개체 개념의 도입에 의한 해결책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과 입장을 달리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91) 가. ‘-회’와 ‘-네’도 서로 성격이 다른 복수 표지로 봐야 하며 그 차이는 (20)과 같다.

나. 세 복수 표지 중 ‘-회’와 ‘-네’는 각각의 고유 N-선택 성격에 의해 선행 명사 성분과 함께 N-부가 구조를 이루며 ‘-들’은 명사가 갖는 [복수] 자질의 형태적 실현으로서 N-부가 구조를 이룬다.

즉 이 제안에 의하면 각 복수 표지들은 S.-Y. Park(2022)의 제안과 달리 독자적 핵을 이루지 못하고 N-부가 구조상의 수식어 혹은 비핵 성분으로 규정되는데, 본고는 이런 구조적 성격이 갖는 의미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92) N과 함께 N-부가 구조를 이루는 각 복수 표지들은 N의 외연을 확장 또는 변경한다.

이는 NP의 외연과 DP의 외연이 서로 성격이 다르다는 가정하에 NP 내부에 위치하는 이들 복수 표지가 NP 외연의 결정에만 관여한다는 제안이다.

한편 필자는 K. Choi(2001, 2025a) 등의 연구를 통해 한국어의 여러 수-분류사 구성의 구조적, 해석적 성격 간에 다음과 같은 연관성이 있음을 주장해 온 바 있다.

표 3. 수-분류사의 각 유형별 구조 및 해석적 특성

	구조	해석적 특성
분류사-격형	N-부가 구조 [N N [NNum NNum-Cl]]	Simple cardinal 해석
명사-격형/이중격형	[NNumP [DP] [NNum NNum-Cl]]	부분 해석
속격형	(84)	수식어 해석

그러나 왜 이런 상관성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제안이 없었다. 본고는 그 공백이 (92)를 통해 메꾸어질 수 있음을 보인다. 즉 복수 표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명사와 N-부가 구조를 이루는 분류사-격형의 수-분류사는 (92)의 의미적 성격을 가짐으로 인해 명사의 NP 외연을 수적으로 확정하며 결국 simple cardinal 해석을 가지게 된다. 명사-격형/이중격형에서는 수-분류사가 DP 바깥에 위치하므로 DP 내 NP의 외연을 수적으로 확정하는 기능은 가지지 못하며 단지 DP가 갖는 지시의 범위 내에서 수-분류사의 수적 정보에 맞는 개체만을 가리키게 되는 부분 해석을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속격형에서는 수-분류사가 수식어 위치에 오므로, 수식어로서의 해석만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본

다. 수식어가 NP의 외연에 대해 갖는 관계는 제한적 관계절이 NP 외연에 대해 갖는 관계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즉 관계절의 경우 NP 외연을 관계절의 내용에 맞게 제한하는 기능을 가지는데, 수식어로서의 수-분류사도 같은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분류사-격형의 수-분류사에 의한 외연 제한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유형 간에는 수-분류사의 구조적 위치 차이로 인한 다른 의미적 효과를 가짐을 앞에서 보았다.

References

- Bale, A., & Coon, J. (2014). Classifiers are for numerals, not for nouns. *Linguistic Inquiry*, 45, 695-707.
- Bale, A., Coon, J., & López, N. A. (2019). Classifiers, partitions, and measurements: Exploring the syntax and semantics of sortal classifiers. *Glossa*, 4, 1-30.
- Borer, H. (2005). *Structuring sense 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hierchia, G. (1998). Reference to kinds across language. *Natural Language Semantics*, 6, 339-405.
- Choi, K. (1991). *A theory of syntactic X⁰-subcategoriza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WA.
- Choi, K. (1993). Hankwuke canghyeng pwuceng kwumwunuy kwuco.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3, 25-78.
- Choi, K. (1998). Hankwukeuy pwucengkuke ‘amwu’ey tayhaye.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8, 313-341.
- Choi, K. (2001). Hankwuke swulyangsa kwusenguy kwucowa uymi: Pisokkyekhyengul cwungsimulo. *Language Research*, 37, 445-482.
- Choi, K. (2009). *Hankwuke kyek kwa cosauy sayngsengthongsalon*. Seoul: Hankook Muwnhwasa.
- Choi, K. (2013). Hankwukeuy 3inching cisi phyohyen ‘ku’ey kwanhan soko.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23, 527-558.
- Choi, K. (2023). Hankwukeuy cisisanun cinceng myengsakwuuy kinung hayki aninka: Eswuney tayhan pan-senhyeng tayung konglicek cepkunpep. In *Proceedings of SMOG Conference 2023* (pp. 28-71). Daegu.
- Choi, K. (2025a). Hankwukeuy swu-pwunlyusa kwuseng (The numeral classifier construction in Korean). *Language and Information Society*, 56, 213-256.
- Choi, K. (2025b). *‘kuhuy’nun nappuko ‘kutul’un way cohunka kuliko ‘kuney’nun? Unpublished Ms.

- Corbett, G. C. (2000). *Numb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al, A. R. (2017). Countability distinctions and semantic variation. *Natural Language Semantics*, 25, 125-171.
- Hong, Y.-T. (2014). Twu kaci yuhyenguy sowi hankwuke tongkyek kwumwu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24, 281-306.
- Hong, Y.-T. (2019). Myengsa hwu pwunlyusa kwumwunuy kwuco.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29, 485-515.
- Im, H.-P. (2000). Pokswu phyoci 'tul'uy sakenseng. *Aysanhakpo*, 24, 3-50.
- Jun, Y. (2004). Hankwukeuy pokswusengkwa chongchingseng/hancenseng. *Language and Information*, 8, 27-45.
- Jun, Y. (2007). Hankwuke pokswu phyohyenuy uymilon: 'tul'uy thonghapcek haysek. *Enehak*, 49, 337-359.
- Kang, B. (1994). Plurality and other semantic aspects of common nouns in Korean.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3, 1-24.
- Kang, B. (2007). Pokswusengkwa pokswu phyoci: 'tul'ul cwungsimulo. *Enehak*, 47, 3-31.
- Kang, B. (2008). Twu kaci pokswuhyenguy uymi chaiey tayhaye. *Language and Information*, 12, 115-137.
- Kim, K., & Melchin, P. B. (2018). Modifying plurals, classifiers, and co-occurrence: The case of Korean. *Glossa*, 3, 1-29.
- Kim, Y.-H. (2016). Hankwuke taymyengsauy pemcwucek ciwi: 'ku'lul cwungsimulo. *Studies in Modern Grammar*, 87, 45-58.
- Ko, Y.-K., & Koo, B.-K. (2008). *Wilimal mwunpeplon*. Seoul: Cipmwuntang.
- Kwak, E.-J. (2003). Interpretations of plural phrases. *Eoneohak*, 35, 3-36.
- Kwon, S.-N., & Zribi-Hertz, A. (2004). Number from a syntactic perspective: Why plural marking looks 'truer' in French than in Korean. In O. Bonami & P. Cabredo Hofherr (Eds.), *Empirical issues in formal syntax and semantics* 5 (pp. 133-158).
- Lee, C. (2000). Numeral classifiers, (in-)definiteness and incremental themes in Korean. In C. Lee & J. Whitman (Eds.), *Korean syntax and semantics: LSA Institute workshop*, Santa Cruz, '91 (pp. 109-131). Seoul: Thaehaksa.
- Lee, I.-S., & Chae, W. (1999). *Kwukemwunpeplon kanguy*. Seoul: Hakyeonsa.
- Li, A. (1999). Plurality in a classifier language.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8, 75-99.
- Link, G. (1983). The logical analysis of plurals and mass terms: A lattice-theoretical approach. In R. Bäuerle, C. Schwarze, & A. von Stechow (Eds.), *Meaning, use, and interpretation of language* (pp. 302-323). Berlin: de Gruyter.

- Little, C. R, Moroney, M., & Royer, J. (2022). Classifiers can be for numerals or nouns: Two strategies for numeral modification. *Glossa*, 7, 1-35.
- Nam, K.-S., & Ko, Y.-K. (2014). *Phyocwun kwukemwunpeplon* (4th edition). Seoul: Pakiceng.
- No, E.-J. (2008). Hankwuke mwuphyohyengkwa 'tul'-pokswuhyenguy uymi. *Discourse and Cognition*, 15, 43-62.
- Paek, M.-H. (2002). Hankwuke pokswu uymi yenkwu. *Discourse and Cognition*, 9, 59-78.
- Park, C.-W. (2010). 'tul'-phyoci myengsakwuuy kwucowa uymi. *Korean Semantics*, 31, 51-75.
- Park, J.-E., & Park, M.-K. (2020). Hankwuke swupwunlyusakwuuy pokswusengkwa coungcek haysek. *Language and Linguistics*, 88, 107-134.
- Park, M.-K. (2022). Context sensitivity, late merge, and the plural marker '-tul' in Korean.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47, 727-751.
- Park, S.-Y. (2022). Two types of plurals and numeral classifiers in classifier languages: The case of Korean.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31, 139-177.
- Simpson, A., & Ngo, B. N. (2018). Classifiers syntax in Vietnamese.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27, 211-246.
- Wiltschko, M. (2008). The syntax of non-inflectional plural marking.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26, 639-694.

최기용

명예교수

광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01897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20

Email: kiyongchoi@kw.ac.kr

접수일자 : 2025. 10. 30

수정본 접수 : 2025. 11. 27

게재결정 : 2025. 11. 27